

傳統住居地 造營에서 나타난 安東地方 同族班村마을圈의 形成過程과 背景要因

李學東* · 崔宗鉉**

* 江原大 社會科學大學 土地行政學科 教授

** 우리 空間 文化研究所 所長

Formation Process & Background Factor of a Sphere of the Traditional Clan Villages in Andong Area of the Yi-Dynasty

Lee, Hak-Dong · Choi, Jong-Hyun

ABSTRACT

This is a study of Sadaebu (previllaged class in a Yi-Dynasty 士大夫) clan villages in the Andong Area with emphasis on Formation Process of development.

The purposes and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

1. To review the process and the background of growth of Myung-Mun-Se-Ga (名門世家: the traditional famed & mighty clans) in Yi-Dynasty, in cases of Andong (安東) province.
2. To analyze about formation process of a sphere of their homogeneous clan villages, and to understand the factors affecting their sphere.
3. To identify the background factor of formation of their sphere of traditional clan villages in Andong province.

I. 研究意圖와 方法

1. 研究意圖

우리의 地域空間의 形成이나 그 形成된 구조는 物理的인 힘과 文化的인 힘을 끌어 당겨 여러 種族을 일정한 空間에 定住시키고 交流와 挑戰에 의해서 人間能力을 확대해 나갔고 固有한 人間集團을 共存, 共生케 하였다.

나아가 그 文化的인 所産은 時空을 초월해서 傳

達되고 이러한 文化的 作用圈은 地域文化圈을 形成, 變容시켜 나갔다.

그 대표적인 예가 朝鮮朝 中期에 道德規範에서 哲學의 次元으로까지 끌어 올려 性理學을 꽃피운 退溪學을 배양시켜 온 安東文化圈이라 할 수 있다. 이 安東文化圈은 아직도 그 자체가 地域主義의 生態的 意味, 人間的, 社會的意味와 그 具體的인 實體를 內藏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安東地方은 우리의 歷史的 背景을 지니고 있는 「圖書館」이요 「博物館」이라고 할 수 있다. 都市 및 地域의 本質과 오늘

날 겪고 있는 갈등구조를 일부나마 이해하고 오늘날 겪고 있는 地域의 現狀構造를 올바르게 통찰하기 위해서 이와같은 地域文化圈의 歷史의 성격을 우선 이해하고 그 原初的 機能과 形態, 거기서 부터 생겨난 목적을 근본적으로 再考察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次元에서 그 全體研究의 일환으로 그 構成의 基本單位를 研究하고자 한다. 地域文化圈形成의 기반이요 기초적 構成單位이며 人間의 協同連帶關係의 基本單位인 共同體요 固有한 人間集團인 同族마을을 우선적으로 研究의 對象을 삼을 필요가 있다.

과거 우리의 先祖들이 住居地를 造營하던 傳統方式은 마을의 立地選定부터 深思熟考하고, 마을을 둘러싼 주변 自然地理形局과 조화를 이루고 地緣의 同族共同體로서 꾸미기 위해서 마을의 空間을 構成하고 거기에 空間秩序를 부여하고 造營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귀중한 우리의 文化遺産으로 保存되고 있다.

우리의 同族班村마을은 수백년의 歷史를 지니고 內外의 多樣한 壓力을 받으면서도 그 歷史的 特性을 保存維持해 왔다.

이와같은 歷史的 시련을 겪은 傳統마을의 持續性과 歷史的 形成過程, 그리고 空間構成의 體系에 着眼해서 先人들의 마을立地觀과 立地原理, 空間을 꾸미는 秩序化의 原理와 그 根據, 그리고 總體的 慧眼을 捕捉하고자 한다.

이번 研究는 앞에서 提示하는 研究의 先行研究인 동시에 前提와 背景인 同族마을圈의 形成과정과 그 사회, 경제적 背景要因을 究明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이와같은 背景위에 物理的 空間은 形成되고 秩序가 부여되고 空間적 特성과 獨自性이 배어 나오기 때문이다.

2. 研究範圍와 方法

본 研究의 範圍는 시대적으로 역사적 脈絡에서 보면 同族마을形成의 바탕이 된 李朝初期와 그 形成시기인 中期이후부터 末期까지로 限定한다.

空間적으로는 研究對象地域인 安東地方에 限定하고 전국적이거나 慶北地方은 研究배경으로만 고

려한다. 安東地方의 同族마을 中에서도 分派作用에 의한 同族마을圈形成이 뚜렷한 5대 姓氏에 限定하였다. 研究內容의 範圍는 研究意圖에서도 밝혔듯이 同族마을 形成主體인 在地士族의 성장배경을 밝히고 사례연구를 통해서 同族마을領域圈의 形成過程을 實證的으로 추적 분석하고 그 背景要因 究明에 限定한다.

同族마을에 관한 先行研究는 日帝時代 일본학자들에 의해서 全體調査를 통한 기초연구가 있었다.

해방이후 歷史分野에서 중세사회의 성격과 기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社會學 分野에서 朝鮮시대 自然部落의 村落 共同體 성격을 이해하고 그 解體過程을 연구하기 위해서, 人類. 民俗學分野에서 氏族部落의 人類學的 構造해명을 위해서 지리학 분야에서 形成과정의 지리적 현상과 文化景觀을 중심으로 建築學쪽에서 同族마을의 空間構成패턴과 原理究明에 各己 研究의 초점이 주어졌다.

본 연구의 방법은

첫째, 조선후기에 성립하는 同族마을에 관한 一般的인 理解를 위하여 朝鮮時代史의. 文化. 社會的 배경과 社會變動을 考察하였다.

둘째, 同族마을 形成 主體인 士大夫들의 성장과 그 배경을 문헌조사를 통해서 고찰하고

세째, 1990년부터 1991년간에 걸쳐 연구대상지 마을을 답사하여 氏族의 移住와 分化過程을 實證的으로 밝혔고

네째, 地緣的 協同共同體로서 同族마을圈形成의 背景要因을 現地調査와 문헌, 기왕의 연구를 종합하여 밝혀냈다.

II. 在地士族의 成長과 背景

1. 麗末鮮初의 人口移動과 慶北地方으로의 人口集中

麗末鮮初에 이르는 期間은 우리나라에서 地域間 人口移動이 激甚한 時期였다. 그 背景과 緣由를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¹⁾

첫째, 高麗末 北虜와 南倭의 侵略으로 因한 戰亂

註 1) 李樹健, 朝鮮初期戶口의 移動現象, 李瑄根 古稀記念 韓國學論集, 1974

을 避하기 위해서 北에서 南으로, 沿岸에서 內陸으로 大規模 人口移動이 일어났다.

둘째, 戰亂과 더불어 飢饉과 疾病, 官家의 收奪과 虐政에서 벗어나기 위해 逃賦·避役하려는 流移民이 續出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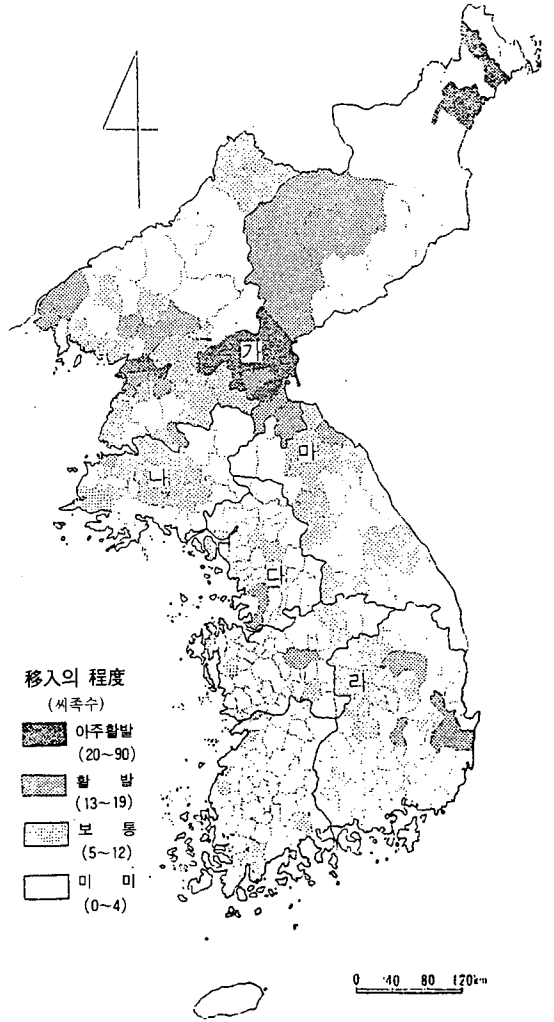
세째, 당시 國家의 拓境事業과 더불어 兩界 國境地帶의 國防. 軍事上的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南에서 北으로 移住시키므로써 政策的 移民인 北方徙民이 많았다.

慶北地方은 이러한 避難民이나 流移民을 收容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土壤을 갖추고 있었다. 慶北地方은 兩大 峻嶺에 의한 自然的 障壁을 이루어 戰亂의 被害가 적고 避難하기에 容易하였다. 또한 全羅道와 함께 農地가 넓고 肥沃할 뿐 아니라 農業技術이 發達하고 水利施設이 좋아 農業生産性이 他道에 比해서 높은 地域이었다. 따라서 朝鮮王朝에 들어와서 점차 社會, 經濟的으로 安定되어 가게되자 이 西北地方의 住民이 북쪽 오랑캐의 侵略으로 鳥嶺과 竹嶺을 넘어 慶北 內陸地方에 定着하기도 하였다. 東. 南海岸의 住民들도 麗末 왜구를 피해 이곳으로 流寓하는 者가 많았다.²⁾ 이러한 流移民들의 移住는 大多數가 慶北地方의 在地土豪들의 傘下에 吸收되거나 緣故地를 따라 定着하게 되었다. 地方土豪나 士族들은 混亂期를 利用하여 賣得. 開墾. 增與 등의 手段을 通하여 農莊을 擴大해 나갔다. 移住民들은 農莊을 管理, 耕作하는 佃戶³⁾와 奴婢가 되어 많이 生活하고 있었으니 戶口增加의 背景이 되었던 것이다.⁴⁾

「世宗實錄地理誌」,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를 利用해서 高麗, 朝鮮時代 氏族의 移住地域을 研究한 玉漢錫教授의 論文⁵⁾를 보면 朝鮮前期 主要移住地域 [圖 1]과 같다.

여기서 보면 麗末鮮初는 北方徙民을 除外하면 洛東江 中. 上流地域인 安東. 尙州. 醴泉. 善山등지와 慶州. 大邱等地에 集中하였다.

世宗7年(1425) 慶尙道地理誌의 統計를 利用해서



資料 : 玉漢錫, 高麗·朝鮮時代 氏族의 移住研究, 地理學 論叢, 第14號, 1987. p. 95.

[圖 1] 朝鮮前期 主要 移住地域

당시의 時代의 背景과 地域의 特性에 따른 人口分布를 살펴보면 [圖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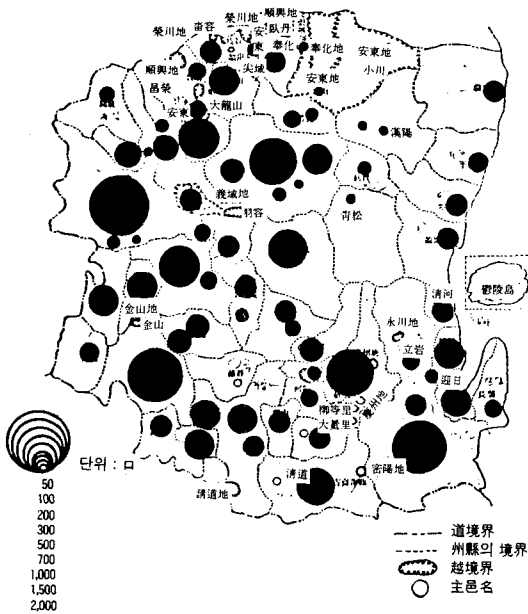
즉 嶺下의 避難地로서 北虜南倭의 侵略을 작게 받고 比較的 農業이 發達한 盆地地域인 內陸大邑中心圈의 慶州府. 安東府. 尙州牧. 星州牧. 善山府. 永

註 2) 慶尙北道史編纂委員會, 慶尙北道史 上卷, 1983, 734쪽

註 3) 朝鮮時代에도 農地所有者가 自身の 農地를 직접 耕作하지 않고 賃賃하여 賃賃料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오늘날 우리나라 歷史學者들은 그러한 土地賃賃關係를 地主田戶制라 부르고 賃賃人을 田戶라고 부른다.

註 4) 慶尙道戶口(J)數가 太宗4年(1404)에 98,915口에서 28年 뒤인 世宗14年 (1432)에 173,759口가 되어 거의 倍로 增加하였다. (慶尙北道史編纂委員會, 慶尙北道史 상권, 1983, 730-731쪽)

註 5) 玉漢錫, 高麗. 朝鮮時代 氏族의 移住地域研究, 地理學論集, 第14號, 1987, 95-97쪽.



資料：慶尙道地理誌에 나타난 郡縣戶口 統計를 利用하여 筆者가 作成

[圖 2] 朝鮮前期 慶北地方人口分布

川郡, 醴泉郡, 榮川, 順興, 豐基地域이 戶口가 充實하였다. 反面 왜구의 침해를 많이 입은 蔚珍縣, 平海郡, 寧海府 盈德縣등의 沿岸地域과 農業生産性이 劣惡한 禮安, 才山, 小川, 靑松, 眞寶, 英陽등 安東東, 北部 山間避地의 地域에는 戶口가 零細하였다.

2. 慶北地方 在地土族의 成長

李樹健教授의 一連의 研究에 의하면 慶北地方의 在地土族은 다음과 같은 成長過程을 밟고 있다.⁶⁾

地緣的 村落共同體로서의 [土]와 血緣的 氏族共同體로서 「姓」의 二重의 意味를 지닌 「土姓」은 新羅末이래 朝鮮初期까지 歷史의 支配勢力을 產出시

키는 供給源의 역할을 하였다.⁷⁾ 羅末麗初 地方豪族의 土姓은 高麗王朝의 進展에 따라 在京官人과 在地勢力으로 分化되어 갔다. 郡縣土姓에서 上京從仕하면 중앙의 貴族과 官僚가 되었고 그대로 土着하면 그 在地邑의 戶長, 副戶長등 鄉里世界를 形成해 갔다.⁸⁾

高麗中期까지 開京을 중심으로 한 中部地方 出身의 土姓들이 政界의 主導權을 잡고 있다가 武臣執權을 계기로 支配勢力이 文臣에서 武臣으로, 門閥貴族에서 新進勢力으로, 中部地方 土姓에서 三南地方 土姓으로, 大邑土姓에서 中小郡縣 土姓으로 交替되어 갔다. 빈번한 政變과 既成權貴들의 權力爭奪은 끊임없이 淘汰作用을 가져왔고 그러한 過程에서 支配勢力의 新陣代謝가 활발하여 新進勢力은 항상 地方土姓에서 供給되었다.⁹⁾

이렇게 볼때 慶北地方의 士大夫家系가 大部分 郡縣의 土姓吏族에서 由來하였고, 土族化의 時期는 14世紀에 가장 활발하였다. 이들 土姓吏族은 高麗後半期의 紊亂한 政세를 틈타 工曹典書, 版圖判書등 「添設職」¹⁰⁾의 鑑發, 令同正, 史同正, 軍器監등 要職과 檢校職 및 軍職, 雜職등을 통해서 土族化가 활발하게 進行되었다.¹¹⁾

安東, 星州, 善山, 尙州, 永川, 慶州등지에서 麗末의 士大夫階層이 가장 많이 輩出되었다.¹²⁾

[表 1] 世宗實錄地理誌에 依據한 姓氏分布

| 區分 \ 道別 | 慶尙 | 全羅 | 忠清 | 京畿 | 黃海 | 江原 | 計 |
|---------|-----|-----|-----|-----|-----|-----|------|
| 土姓數 | 500 | 517 | 271 | 223 | 100 | 106 | 1717 |
| 亡姓數 | 12 | 19 | 84 | 141 | 77 | 75 | 408 |
| 來姓數 | 126 | 32 | 32 | 35 | 51 | 25 | 301 |
| 續姓數 | 131 | 80 | 44 | 22 | 53 | 86 | 416 |

資料：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嶺南大學校出版部, 1984. 25쪽

註 6) 李樹健, 土姓研究(其一), 東洋文化, 16권 1975. 고려전기 土姓研究, 대구사학, 14권, 1978. 嶺南 士林派의 形成,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4. 등

註 7) 李樹健, 土姓研究(其一), 동양文化, 16권, 1975, 53쪽.

註 8)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嶺南대학교출판부, 1984, 24쪽.

註 9) 李樹健, 前掲書, 25쪽.

註 10) 添設職은 高麗 공민왕대에 對外關係의 악화로 軍事力을 確保하기 위해 施行되었으며 祿俸이 없는 非實職이었지만 官人으로서 品계를 인정하였다.

(李泰鎮, 士林派의 留鄉所復立運動, 上, 震稿學報 1973, 35쪽에서 再引用)

註 11)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前掲書 147쪽.

註 12) 李樹健, 高麗前期 土姓研究, 대구사학 14집, 1978, 55-60쪽.

위[表 1]에서 보면, 慶尙道와 全羅道가 土姓이 가장 많고 亡姓은 慶尙道가 가장 작아 土姓의 土着성이 강해서 消滅이나 流出이 작다. 反面 來姓과 續姓이 他道에 비해 가장 많아 他道 土姓의 流入이 많았다는 事實이다. 또한 上京從仕한 土姓도 高麗前期에 27姓貫이었던 것이 高麗後期에 42姓貫으로, 朝鮮初期 文科及第者 2名以上을 輩出한 姓貫數가 63姓貫으로 엄청나게 增加하였다.¹³⁾

慶北地方의 各邑土姓들의 진출상황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高麗前期 보다는 後期에, 다시 麗末에 올수록 「上京從仕」하는 土姓이 격증하였고 그 가운데서도 名門世族으로 成長한 家門이 많았다.

名門世族으로 成長한 家門은 慶州金氏와 李氏, 安東金氏와 權氏, 尙州金氏, 星州李氏, 靑松沈氏, 高靈申氏, 延日鄭氏, 河陽許氏, 順興安氏, 善山金氏 등 12姓에 이른다. 이들 鉅族들은 15세기를 대표하던 名門大族으로서 高麗前期부터 門閥貴族의 地位를 계속 維持해온 土姓들도 있었지만 대개는 高麗後期 이래 郡縣吏族에서 成長한 家門들이었다. 郡縣吏族 가운데서도 戶長層의 後裔가 主流를 이루었다.¹⁴⁾

이들 戶長層의 鄉吏도 고려시대부터 本貫에 鄉役을 世襲하면서 郡縣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온 대표적인 在地勢力이다.

특히 鄉吏世界를 領導하던 戶長層은 강인한 族의 紐帶와 祖上傳來의 鞏固한 在地的 基盤을 지닌 土豪로서 한편으로 子弟의 及第로 土族이 되기도하고 다른 한편으로 鄉役을 世襲하면서 邑吏와 「其人」 및 京邸吏, 官吏와 연결되면서 土族과 對立되는 독자적인 세력을 形成해 나갔다.¹⁵⁾ 따라서 當該邑 土姓끼리 鄉吏世界를 形成하여 실질적으로 郡縣司를 運籌해 왔다.

高麗後期 中央執權制의 強化와 地方統治體制의 整備에 따라 鄉吏의 地位는 계속 格下되었지만 鄉邑을 武斷하고 土地와 奴婢를 勒占하는 土豪存在로서 「元惡鄉吏」로까지 호칭되었다. 이처럼 慶北地方

이 다른 地方에 비해 土姓吏族의 土着성이 강인한 데다가 各邑鄉吏들은 本邑과 休戚을 같이 하면서 鄉役을 世襲해 왔기 때문이다.¹⁶⁾

14世紀末 王朝交替期에 土族과 吏族의 分化는 더욱 甚해서 같은 土族出身이면서, 한쪽은 上京從仕하여 在京官人이 되고 다른쪽은 在地土族과 吏族으로 區分되고 나아가서는 兩班과 中人이라는 身分階層이 생겼다. 따라서 土族은 學問과 벼슬인 官을, 吏族은 行政實務인 「吏事」를 擔當하는 所關職務까지 區分되었다. 이러한 土族과 吏族의 分化는 그들의 住居地까지 區分하게 되었다.¹⁷⁾

王朝交替期에 土族으로서 活動한 慶北地方의 出身人物의 成分을 다음 3가지로 分析하고 있다.¹⁸⁾

첫째, 高麗後期에서 麗末에 걸쳐 郡縣의 土姓鄉吏에서 起家하여 麗末에 이미 權門世族으로 成長한 前期 「鉅族」에 드는 部類로서 金方慶의 安東金氏, 權溥, 權漢功의 安東權氏, 安珣, 安軸, 安文凱의 順興安氏, 李齊賢, 世琪의 慶州李氏, 李兆年兄弟의 星州李氏, 金得培兄弟의 尙州金氏, 朴松庇, 朴元桂의 寧海朴氏, 尹自觀의 海平尹氏등은 14世紀末에 在京既成勢力으로서 혹은 李成桂편에 서서 新王朝의 執權勢力이 되기도 하였고 혹은 「不事二君」의 節義를 지킨데서 去勢되거나 落鄉하였다.

둘째, 麗末의 新興士大夫 系列에 드는 勢力으로서 王朝交替期에 兩分되어 鄭道傳, 權近등은 執權勢力으로 남고 鄭夢周, 金震陽, 李崇仁, 吉再등은 殉節하거나 落鄉하여 在野勢力으로 밀려났다. 이들 在野勢力 가운데 麗末鮮初에 걸쳐 土姓土族에서 成長한 權軫, 許稠, 皇甫仁, 申尙, 金淡, 黃有定, 鄭自英, 趙庸, 尹祥, 金叔滋, 洪貴達, 曹偉, 孫昭, 李滉, 柳成龍, 李賢輔, 金誠一, 金于鬲, 權孟孫, 金楊震, 金三近등 土着的 家門은 朝鮮王朝가 확립한 뒤에 본격적으로 進出하였다.

셋째, 慶北을 本貫으로 하지 않은 他道出身 土族이 各其 緣故地(妻鄉, 外鄉, 農庄)를 따라 慶北地方에 落鄉하거나 移住한 崔善門, 金宏弼, 李彥迪,

註 13) 李樹健, 前揭論文, 46쪽.

註 14)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前揭書 27쪽.

註 15) 慶尙北道史編纂委員會, 前揭書, 684쪽.

註 16) 慶尙北道史編纂委員會, 前揭書, 685쪽.

註 17)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前揭書, 148쪽.

註 18) 慶尙北道史編纂委員會, 前揭書, 635쪽.

金緣, 鄭述, 鄭琢, 李玄逸, 李元楨 등의 家門이 있다.

이들 세부류의 家門가운데 上京勢力은 王朝交替와 世祖篡奪 및 빈번한 士禍로 인해 다시 落鄉하여 在地士族으로 發展하기도 하였고 他道出身 士族들도 그러한 激變期마다 外鄉, 妻鄉 또는 農場을 따라 移住하면서 過去의 在京官人이 이제 在地士族으로 體質이 바뀌어 가기도 하였다.

한편 같은 慶北 土姓이면서 士族化 過程에서 本貫을 떠나 隣接邑에 定着하여 強力한 士族으로 成長하기도 하였다.

土着성이 강한 慶北地方의 各邑 鄉吏들은 住民에게 徵稅, 調役하므로써 郡縣行政은 그들의 掌中에 쥐어졌으며 그들의 弄奸과 挾雜이 甚해졌다. 따라서 朝鮮王朝는 中央執權화와 兩班官僚 支配體制의 確立過程에서 高麗의 鄉吏를 地方行政人의 使役人으로 格下시키기 위해 使族과 鄉吏를 區別하는 出仕路와 服飾의 制限措置, 반근착절해은 鄉吏들로 하여금 本貫을 떠나게 하는 措置를 취했다. 麗末이래 避難, 避役, 郡縣改編, 怨惡鄉吏處罰法, 北方從民 등 자발적 또는 타율적인 요인으로 향리들은 대 폭적으로 이동되었다 그 結果 鄉吏들의 大幅의 이동으로 그 勢力이 크게 弱화되었다.¹⁹⁾

朝鮮時代의 鄉吏는 郡縣統治에 있어서 王權代行者인 首領과 在地士族과의 사이에 介재하는 存在로서 이들은 서로 三角關係를 이루고 있었다. 首領과 在地士族은 같은 兩班身分으로서 鄉吏를 監督하고 首領과 鄉吏는 地方官府에 君臣關係와 같은 紐帶를 가지고 在地士族과 對立하며, 在地士族과 鄉吏는 같은 土着勢力으로서 中央政府에서 부임한 首領에 對立하는 일면이 있었고 이러한 3者關係가 朝鮮時代 地方社會의 構造의 特性을 잘 말해주고 있다.²⁰⁾ 實錄地理誌를 통해서 慶北地方 土姓의 發展過程을 다음의 5가지 類型으로 把握하고 있다.²¹⁾

첫째, 慶州金, 李, 崔氏, 淸道金氏, 大邱徐氏, 玄風郭氏, 迎日鄭氏, 安東金, 權氏, 寧海朴氏, 申氏, 英陽南氏, 順興安氏, 永川李氏, 靑松沈氏, 義城金氏, 禮安李氏, 河陽許氏, 仁東張氏, 奉化琴氏, 缶溪洪氏, 芮氏, 尙州金, 朴氏, 星州李氏, 善山金氏, 海

平金氏, 高靈朴氏, 平海黃氏, 蔚珍張氏 등은 全國 또는 一方의 大姓名門으로서 士族과 吏族 또는 京派(上京從仕)와 鄉派(在地勢力)를 具備하였다.

둘째, 慶州孫氏, 大邱裴氏, 醴泉任, 尹, 權氏, 義興朴氏, 眞城李氏, 比安朴氏, 星州裴, 呂氏, 咸昌金氏, 平海孫氏, 蔚珍林氏 등은 全國의 土姓으로 擴散되거나 高級官人은 많이 輩出하지 못했으나 本貫을 中心으로 強力한 在地의 基盤을 갖추고 있었다.

셋째, 慶州鄭氏, 杞溪俞氏, 興海裴氏, 慶山全氏, 豐山洪氏, 海平尹氏, 高靈申氏 등은 本貫에는 在地 勢力을 크게 남기지 못한채 주로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서 定着하여 勢力을 떨친 姓氏이다.

네째, 安康盧氏, 杞溪俞氏, 河濱李氏, 豐山柳, 洪, 金氏, 一直孫氏, 甘泉文氏, 英陽南氏, 殷豐申氏, 若木柳氏, 缶溪洪氏, 永順太氏, 加利李氏, 海平金, 尹, 吉氏, 孝令司空氏 등은 屬縣土姓으로 成長하여 一國의 大姓과 名門으로 發展하기도 하였고 本貫을 中心으로 強力한 在地 勢力으로 成長하기도 한 姓氏이다.

다섯째, 以上の 4가지 類型을 제외하면 나머지 土姓들은 本貫吏族으로 始終하여 朝鮮中期까지 士族을 輩出하지 못한 것도 있고 本貫을 떠나 他地에서 定着한 것도 있으며, 혹은 鄉所部曲의 姓과 같이 士族으로 成長하지 못한 姓氏들은 時代의 進展에 따라 改姓, 改貫해 갔던 것이다.

3. 在地士族의 成長背景

—經濟的 基盤으로서의 奴婢와 農庄의 擴大—

在地士族으로서 成長, 維持해 나가는데 農土와 奴婢는 2대 經濟的 基盤인 동시에 2대 生産要素였다. 즉 朝鮮初期 主產物은 農產物로서, 公, 私奴婢의 勞役없이 全國의 絶對農耕地를 所有한 王室 및 兩班 階級層은 農耕이란 업도도 낼 수 없었다. 그뿐 아니라 당시 奴婢의 勞役이 없다면 손하나 움직여 일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던 兩班들의 生活方式은 큰 차질을 빚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奴婢는 日常生活에 있어 없어서는 아니될 必須的인 存在이

註 19) 慶尙北道史編纂委員會, 前掲書, 686쪽.

註 20) 李成茂, 朝鮮初期의 鄉吏, 韓國史研究 5, 1970. 參照

註 21) 慶尙北道史編纂委員會, 前掲書, 748-749쪽.

었다. 法人格이 없는 이들 奴婢는 兩班집의 소나 말과 같은 生活道具와 다를바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奴婢는 兩班階層의 產業社會 維持와 日常生活의 道具의 역할을 하여주는 財貨이며 財貨增殖 手段의 媒介體이기 때문에 兩班들은 많은 奴婢의 所有慾을 나타내게 하였던 것이다. 이 奴婢는 당시 財貨로서 富를 測定하는 尺度이기에 勢道家일수록 過多한 奴婢를 피하였던 것이다.²²⁾

그렇기 때문에 奴婢는 士族의 중요한 生活手段 내지는 財産으로서 必要不可缺한 存在였으며 이들의 有無가 士族의 家運盛衰에 關係됨이 컸다.²³⁾

이와같은 士族의 奴婢觀은 經濟的 利害關係 뿐만 아니라 奴婢制度는 階級的 秩序를 維持하고 儒敎의 禮俗과 風敎를 振作시키는 根本이라고 간주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性理學에 訓道된 士大夫들의 奴婢觀은 主僕의 分을 君臣의 分과 同一視 하였고 또 身分의 高下에 따라 役의 貴賤觀念이 結付되어 있었으므로 奴婢制度의 社會的 存續을 希求해 마지않았다.²⁴⁾ 이와 반대로 國家的인 立場에서 볼때, 奴婢의 增減은 財政의 收入과 軍額의 增減에 直結되므로 「良多賤小」의 方向으로 奴婢所有를 制限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끝내 實現해 보지 못하였다.²⁵⁾

이처럼 兩班社會의 必需的 存在로서 奴婢는 社會的 需要와 自然的인 增加및 士族들의 積極的인 奴婢增殖策에 의하여 幾何級數的으로 增加해 갔다. 公民의 私民化가 麗末에 激增하였다가 15세기 전반기인 太宗-世宗에 걸친 「良多賤小」策에 따라 줄어들었던 것이며, 그후 勳舊勢力의 肥大²⁶⁾와 在地 士族의 成長에 따라 15세기 후반부터 다시 奴婢數가

增加하게 되었다. 麗鮮王朝 交替期와 世祖篡奪時 慶北地方으로 落鄉한 在京官僚나 在地士族 가운데 功臣家門과 婚姻關係에 있는 者가 많았고 嶺南 士林派의 家系와 그들의 民田을 追跡해 가면 이들 功臣과 직접 간접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勳舊派와 士林派의 사이도 婚姻關係로 따지면 서로 얽혀있다. 더구나 15세기는 在京官僚와 在地士族의 交遊가 활발하였고 그들사이에 重疊的인 通婚이 維持되어 그들의 民田과 奴婢는 곧 그들의 子弟와 사위 그리고 內外後孫들에게 均分相續 또는 分配되었기 때문에 그 혜택은 在地士族으로 擴散되었다.²⁷⁾

특히 權豪들은 相續. 分配. 增與. 買得의 手段으로 奴婢를 增殖시켜 나갔지만 奴婢를 良人과 交婚시키는 良賤相婚에 의해서 幾何級數的으로 增加하였다.

즉 良妻并産에서 나온 奴婢數가 많은 比重을 차지하였고 그것은 동시에 良人의 賤人化라는 가장 일반적인 良人侵蝕作用이었던 것이다.²⁸⁾

朝鮮前期의 慶北地方의 名家에서는 15-16世紀에 걸쳐 數百名의 奴婢를 所有하고 있었다.²⁹⁾ 이들 家門은 주로 慶州良洞의 孫氏와 李氏, 寧海 仁良里의 載寧李氏, 務安朴氏, 禮安의 溫溪. 土溪의 眞城李氏, 河回의 豐山柳氏, 川前의 義城金氏, 烏川의 光山金氏와 奉化琴氏, 安東의 周下洞 眞城李氏, 校洞權氏와 淸州河氏, 佳逸權氏와 葛田의 順興安氏, 素山의 安東金氏와 五美의 豐山金氏, 奉化의 西谷權氏, 醴泉의 竹林權氏와 渚谷權氏, 高坪鄭氏, 安東의 水谷柳氏, 高靈의 桃津朴氏등과 같은 名家들이었다.

註 22) 延正悅, 朝鮮初期 奴婢相續과 賦與에 관한 연구, 朴秉濠 教授 華甲記念 論文集, 1991, 167쪽.

註 23)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前掲書, 170쪽.

註 24) 李樹健, 前掲書, 172쪽.

註 25) 15세기 조선조 지배세력인 勳舊派와 士林派는 실제 政論에 있어서 의견이 相反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奴婢문제에 대해서만은 利害가 일치하였다. 金宗直 일파가 成宗祖에 대거 진출하여 言論과 文翰之任을 담당하면서 당시 집권세력인 勳舊派의 批政에 대하여 신랄하게 批判하였지만 個人所有奴婢問題에 관해서만은 利害를 같이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李樹健, 朝鮮太宗祖에 있어서의 對奴婢施策, 대구사학 1집, 1969, 27-60쪽.)

註 26) 回軍功臣 (李成桂 등 45인), 開國功臣 (芳毅. 廉克廉 등 39인), 定社功臣 (芳遠 등 18인), 佐命功臣 (河崙 등 38인) 靖難功臣 (鄭麟趾 등 37인), 佐翼功臣 (韓明滄 등 41인) 敵愾功臣 (曹錫文 등 41인), 翊戴功臣 (申叔舟 등 38인), 佐理功臣 (崔恒 등 75인),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前掲書, 174쪽.)

註 27)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前掲書, 174쪽.

註 28) 韓榮國, 朝鮮中葉의 奴婢結婚樣態, 歷史學報, 75. 76합집, 77집, 1977-78 참조.

이들 奴婢 가운데 家內奴婢는 主家 또는 主家 가 가까운 곳에 살면서 主家內의 雜役과 農耕을 擔當하였고 外居奴婢³⁰⁾는 각기 上典의 農莊을 따라 居住하기도 하고 上典의 庇護下에 荒蕪地를 開墾하여 田地를 넓혀 나가기도 하였다. 土地를 耕作, 管理하였으므로 그가 屬한 上典에게 일정한 身貢을 上納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慶北地方은 어느지방보다 奴婢가 차지하는 比重이 높았던 것이다.

15世紀에서 16世紀로 넘어 오면서 執權勢力의 解弛와 私的領域이 擴大됨에 따라 慶北地方의 在地士族을 비롯한 吏族 및 中小地主層은 자기네들의 經濟的 基盤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奴婢의 增殖과 더불어 農莊을 擴大, 發展시켜 나갔다.

이와같은 農莊의 成立과 擴大의 背景은 다음의 몇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첫째, 國家의 賜田과 私田의 擴大를 들 수 있다. 麗末에 改革된 科田法의 實施로 高麗王朝를 지탱해 온 舊家世族의 土地를 정리하여 新王朝의 支持勢力에게 再分配하였다. 田制는 形式上으로 「王土思想」의 精神에 立脚하여 國家에서 直接 收租하는 公田을 除外하고는 이를 적절히 分配해서 收租權을 委任함으로써 實質的으로 世襲化 되었다. 兩班들의 土地私有는 널리 認定되고 점차 農莊으로 發展해 갔다.

慶北地方의 士林派 家系는 閑良階層에서 在地士族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에 科田이나 功臣田과는 直接 關係가 없고 外方軍田의 收給者였다.³¹⁾ 따라서 麗末의 土豪의인 郡縣吏族에서 士族化의 길을 걸으면서 土着的인 傳來의 「本田」 및 在地的 基盤위에 開墾·兼併·買得의 手段과 鄉吏의 私田에다가 徵稅, 調役등을 통해 私田을 擴大해 나가므로써 中小

地主로서의 地位를 確固히 해 나갔다.³²⁾

둘째, 陳荒地의 起耕과 새로운 開墾을 들 수 있다. 新王朝가 들어서면서부터 國內政治가 점차 安定되고 왜구의 侵入이 종식됨에 따라 流移民의 環本과 國家의 住民安集策과 積極的인 勸農政策에 의하여 陳荒地의 起耕과 새로운 開墾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特히 他道 流移民의 大量流入은 慶北地方의 在地勢力에게 農莊開墾에 필요한 人的資源을 그만큼 有利하게 供給해 주었다. 당시 在地勢力들은 所有하고 있는 奴婢들의 풍부한 勞動力을 活用하여 內陸山間에 散在해 있는 奧地를 開墾해 나갔다. 이처럼 아무도 손대지 않은 無主陳荒處를 劣惡한 條件下에서도 開墾이 행하여졌던 것은 農地에 대한 人口의 壓力이 거세어졌다는 사실과 農耕技術과 農業生産力이 發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³³⁾ 16世紀부터 在地士族의 地方擴散에 따라 士族의 새로운 卜居地가 開拓되어 갔다. 權撥이 安東府의 越境地인 奈城縣과 春陽縣에서, 金璉이 寧海府의 屬懸인 靑紀懸에서, 李繼陽家門이 禮安의 溫惠와 土溪에서, 李涵家門이 寧海의 屬懸인 英陽에서, 기타 士族이 靑松, 奉化, 榮州, 豊基일대에서 각기 터전을 잡고 주위에 새로운 農莊을 開墾, 擴大해 나갔다.³⁴⁾

세째, 農民投托을 들 수 있다. 權貴들이 私有한 農莊의 屬民들은 搖役이 免除되는 「復戶」의 特典이 있었기 때문에 良民들은 그 所有農地를 農莊에 投托하여 逋逃하는 예가 많았다.

네째, 廢寺 田民의 影占을 들 수 있다. 麗末鮮初의 佛敎寺院 정미기에 郡縣所在 廢寺所屬 田民이 在地勢力에 의해 勒占되었다. 從前의 寺院建物이 헐려서 鄉校나 書齋와 같은 儒敎의인 教育機關이나

註 29) 慶尙北道史編纂委員會, 前掲書, 743쪽.

註 30) 外居奴婢란 獨立된 家戶와 家系를 維持하는 者로서 所屬機關이나 主家에 屬하지 않고 自己經理에 의해서 土地를 耕作하거나 管理하였으며, 이 경우 主家 以外的 다른 地主의 土地도 小作할 수 있었으므로 사실상 常民의 佃戶와 다름없는 처지였다. 이들은 그가 所屬된 官이나 上典에게 奴는 면포2필, 婢는 1필만씩 身貢을 받쳤다. (慶尙北道史編纂委員會, 前掲書, 742쪽.)

註 31) 麗末鮮初의 王朝交替期에 걸쳐 身分制의 再編成過程에서 閑良階級이 郡, 縣의 在地勢力을 代表하였고 그들의 本田多小에 따라 一定한 軍田이 支給되었다. 慶北地方의 士林派의 家系로 볼때 國初에 生存했던 先代의 職役은 文班職보다 軍職과 散職을 지냈던 者가 많았고 이들 家門이 16세기 後半에 걸쳐 비로소 在地士族의 모습을 확실히 드러냈다. 이러한 意味에서 16世紀에 크게 成長하였던 慶北地方의 在地士族들은 國初 科田法아래서 外方軍田의 需給階層으로 存在했던 것이다. (慶尙北道史, 상권, 762쪽)

註 32) 慶北道史編纂委員會, 前掲書, 762쪽.

註 33) 沈義基, 朝鮮時代의 土地法과 土地所有關係, 朴秉濠 教授 華甲記念論文集, 1991, 186쪽.

註 34) 慶尙北道史編纂委員會, 前掲書, 765쪽.

在地士族의 精舍나 齊舍등으로 代替되었고 그 寺院 基址와 所屬 田民도 따라서 歸屬이 바뀌었던 것이다.³⁵⁾

또한 失脚된 在京權貴의 地方所在 田民의 상당수가 在地士族들에게 占據되었다고 보며 土姓吏族들도 다투어 가면서 本貫地나 緣故地에서 田民을 確保했던 것이다.³⁶⁾

다섯째, 官吏의 贈賄, 強占, 買得, 墓位土의 擴大, 「長利」등을 들 수 있다.

朝鮮初 2대 在地勢力을 대표하던 品官과 鄉吏들은 土地를 廣占하여 耕作農民과 並作半收하였고 郡縣의 行政實施를 掌握하면서 사실상 租稅貢賦도 그들의 手中에 있어서 얼마든지 贈賄, 強占, 買得, 墓位土의 擴大등을 피할 수 있는 素地가 마련되어 있었다.³⁷⁾

한편 慶北地方은 全羅道 다음으로 農耕地가 많았던 곳이며 南中國의 先進의인 農耕技術이 일찍부터 收容되어 休閑法대신에 連作法이 普及되므로서 벼농사와 함께 보리, 밀농사도 함께 지었다. 때문에 春窮期를 넘길 수 있어 流移民의 發生을 줄였다. 이와같이 農耕技術이 發達할 수 있었던 背景은 다음과 같다.

첫째, 李岩, 鄭沼, 姜希孟등 慶北地方 出身의 新興士族들이 15世紀에 中央政界에 進出하여 새로운 農書를 編纂, 普及하고 農耕技術을 改良하였다.³⁸⁾

이들은 不在地主인 在京權貴와는 달리 자주 故鄉 農村에 내려와 長期間 居住하며 자기들의 農土를 착실히 經營하여 農業生産性을 向上시키고 經濟的인 基盤도 成長시켰다. 따라서 이들의 農耕技術을 慶北地方에 傳達할 수 있었다.

둘째, 水利灌溉施設의 擴充에 있었다. 당시 慶北

地方에서는 水利灌溉施設로서 堤堰과 川防(보)³⁹⁾이 發達하였다. 旱魃에 對比하여 16世紀初까지 堤堰이 水利施設의 主流를 이루었다. 15世紀 後半 慶北地方은 堤堰이 545個所로서 全國에서 가장 많은 貯水池를 保有해 그만큼 水利施設이 發展되었다.⁴⁰⁾

堤堰보다 工役이 적게 들고 大規模로 관개할 수 있는 川防(보)은 16世紀부터 普及되기 시작하였다. 堤堰의 築造에는 川防(보)에 비하여 施設이 힘들고 規模가 작아 작은 旱魃에도 쉽게 枯渴되었다.

또한 土豪들에게 獨占되는 경우가 많아 가뭄때에 灌溉用으로 크게 寄與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신해서 보는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크고 작은 支流와 山間溪谷에 따라 容易하게 築造하여 引水灌田할 수 있기 때문에 農民들에게 效用價値가 있어 16世紀 후반부터 널리 普及되었다.

이러한 農庄에는 보를 이용하여 河川이나 溪谷물을 끌어들이어 利用할 수 있기 때문에 旱害가 적고 또 河床이 낮기 때문에 水害가 적었다.

15세기부터 安東의 在地士族들은 이런곳을 택하여 卜居하면서 農場을 開設하였다.

Ⅲ. 同族 班村마을圈의 形成과 背景要因

1. 朝鮮後期の 居住地 移動과 洛東江 上流地域으로의 人口集中

川島藤也의 「文化柳氏에 보이는 氏族의 移動과 그 性格」이라는 研究⁴¹⁾를 통해서 士大夫 氏族集團의 居住地 移動과 그 擴散過程을 가장 端的으로 把握할 수 있다.

[圖 3]에서 보는 바와같이 居住地 移動의 第 1

註 35)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前揭書, 169쪽.

註 36) 李樹健, 前揭書, 170쪽.

註 37) 李樹健, 前揭書, 167쪽.

註 38) 農桑輯要, 農事直說, 衿陽雜錄, 四時纂要의 農書를 編纂 普及하였다. (李泰鎮, 14. 15世紀 農業技術의 發達과 新興士族, 제 8 회 東洋學學術會議 講演錄, 檀國大 東洋學研究會, 1978參照)

註 39) 냇물을 끌어 灌溉하는 田地를 泔田이라 한다. 그 泔制는 田이 높고 川이 낮으면 상류를 막아 물이 걸로 돌도록 하여 도랑을 만들어 끌어 들이고, 田이 낮고 川이 높으면 沿邊에 築岸하여 田段을 護하여 구멍을 내어 灌水하는 것이다. 먼것은 10여리, 가까운것은 수백보에 이르며, 큰것은 數千頃, 작은것은 數百이량을 灌溉할 수 있다.

註 40) 慶尙北道史編纂委員會, 前揭書, 77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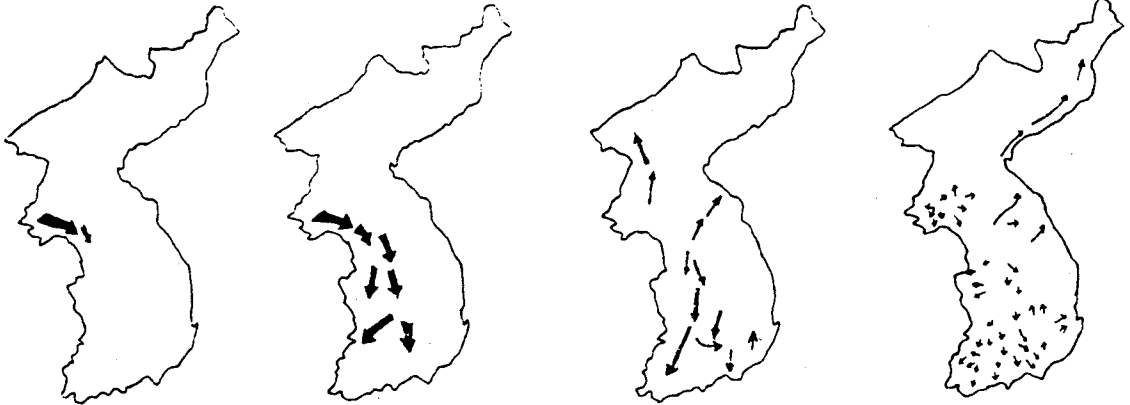
註 41) 川島藤也, 文化柳氏에 보이는 氏族의 移動과 그 性格, 朝鮮學報 70집, 1974, 43-75쪽. 川島藤也는 하바드 燕京圖書館 所藏의 文化柳氏世譜(1803년 序文丁巳譜)를 統計的으로 分析하여 居住地의 地理的 擴散過程을 研究하였다. 居住地의 推定은 [近親者는 死者를 그의 居住地 附近에 埋葬하는 古風習으로 보고 墓地記錄을 中心으로 하였다. (金德鉉, 氏族부락의 形成過程과 立地 및 儒教 文化景觀,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3, 10-11쪽, 再引用)

1단계 : 고려후기(~13세기)

2단계 : 조선초기(14~15세기)

3단계 : 조선중기(15~16세기)

4단계 : 조선후기(18~19세기)



資料 : 川島藤也, 1974. “文化 柳氏에 보이는 氏族의 移動과 그 性格”(朝鮮學報 제70집)에서 인용.

[圖 3] 文化柳氏의 居住地 移動4段階

段階(高麗後期: 10世紀-13世紀)는 居住해 오던 本貫地 황해도 儒川에서 氏族一部가 13世紀初부터 中央官吏로 登용되면서 首都圈으로 進出하는 時期였다.

第 2 段階(麗末鮮初)는 麗末鮮初에 文科등을 通한 官人化 現象이 크게 增大되어 한편으로 京畿道 各處로 擴散되고 다른한편으로 一部는 15世紀 中葉以後 下三道로 長距離 移動하는 現象을 나타나게 되었다. 特히 族人家운데 官僚로서 地位가 높아진 者의 子, 孫의 一部가 典型的으로 先代의 居住地에서 移動하는 傾向을 보인다. 이처럼 朝鮮前期의 長距離 移住는 官人階層에 의하여 主導되어 활발하게 移動한 반면 그렇지 못한 族人은 先代 居住地에 殘留하게 되었다.

第 3 段階(朝鮮前期: 15-16世紀)는 下級官僚 내지 官品이 없는 殘留族人은 황해도 本貫地에서 家勢가 沒落하는 傾向을 보인 반면, 著名한 官僚의 子孫은 그 先代의 보다 많은 土地擴充과 確保된 土地에 移住하므로써 世襲의 으로 相續하여 榮達을 높여 갔고 그 子孫은 더욱 擴散되었다. 그 移住地는 下三道中에서도 주로 충청, 전라도로 퍼져갔다.

第 4 段階(朝鮮後期: 壬亂以後-18世紀末)는 急激한 人口增加로 因하여 朝鮮中期까지 移住한 地域 周邊의 郡, 縣으로 擴散하는 短距離 移動이었다. 18世紀末까지 文化柳氏는 全國 8道에 擴散되었다.

이상과 같이 士大夫 氏族集團의 居住地 移動과

擴散過程 가운데 同族班村마을이 形成되어 가기 시작하는 時期가 第4段階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朝鮮後期의 居住地 移動을 좀더 考察해 보기로 한다.

朝鮮後半期에는 朝鮮朝 封建社會가 崩壞되어 가는 歷史的 徵兆가 여러곳에서 나타났다.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의 兩戰爭으로 全國土가 焦土化되고 그러한 조건아래에서도 兩班支配階級의 閹閹化와 非生産的인 黨爭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갔다. 즉 兩班으로서 社會階級의 地位를 維持하기 위해서 일정한 儒敎的 敎養을 쌓아야 했으며 그것을 위해서 地主階級으로서의 經濟的 位置를 확보해야 했다. 그것은 또 원칙적으로 官職에 오름으로서만 可能했다. 王朝初期에는 兩班階級이 숫자적으로 극히 制限되어 있었으나 人口의 自然增加外에도 잦은 政變과 無計劃的인 科擧의 濫設로 兩班의 數는 增加하는 反面 官職의 數는 계속 制限되었다. 이러한 條件아래서 官職에 대한 爭奪戰이 加熱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爭奪戰은 自然 黨派形成에 의한 政權爭奪戰으로 발전해 갔다. 兩班의 계속적인 숫적 增加는 곧 兩班階級의 分化現象을 가져와서 全體兩班을 執權안의 兩班과 執權밖의 兩班으로 나누어지게 하였다.

17세기이후 執權안의 兩班은 각기 權門勢道를 維持하기 위한 閹閹化의 指向과 이를 위한 지리한 政權爭奪戰이 계속되었다. 執權밖의 兩班은 몰락하거나 庶民化가 促進되었다. 특히 치열했던 黨爭은 非

生産的인 兩班社會의 文治主義, 名分主義 中央執權의 官僚主義를 바탕으로 하여 執權인 兩班層의 계속적인 自己淘汰作用을 거듭해 나가게 했다.⁴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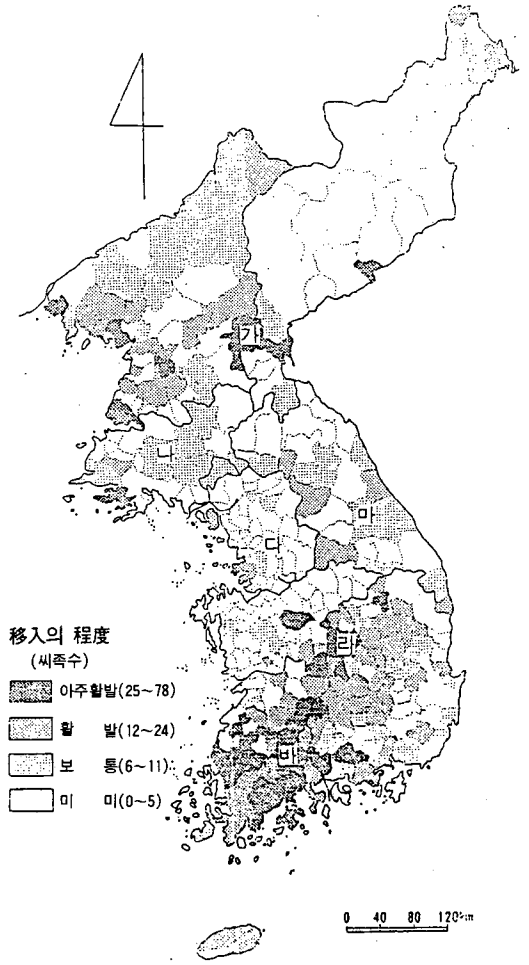
한편, 洪水와 旱魃의 自然災害가 頻發하였고 그로 因한 飢民數가 많이 發生하였다.⁴³⁾ 李朝時代의 自然災害의 기록을 보면, 旱害는 482년간에 89회, 洪水로 인한 水害는 492년간에 89회, 風害는 339년간에 20회, 우박피해는 474년간에 18회, 霜害는 354년간에 22회로 평균 2년마다 1회씩 겪은 셈이 된다.⁴⁴⁾ 또한 傳染病의 流行은 大規模의 飢饉 못지 않게 많은 被害를 남겼다. 이와같은 社會的인 動搖는 中世의 社會秩序를 崩壞시켰다. 朝鮮後期 戶口統計는 많은 隱翊者등 問題點이 發見된다 하더라도 大體的인 人口動向을 把握할 수 있다.

즉 16世紀 初 75萬戶에 人口 375萬名, 150年後(壬亂 60年後)인 17世紀 中葉 131萬戶에 502萬名, 18世紀初 133萬戶에 577萬名, 약100年後인 19世紀 初 176萬戶에 756萬名으로 急增했다. 그 以後 傳染病과 飢饉등으로 人口의 深刻한 減小을 겪어 安東金氏 勢道政權期인 19世紀 中葉에는 154萬餘戶에 655萬名으로 19세기초보다 100萬名이나 減小하였다. 그러나 李朝末인 高宗16年(1879) 193萬餘戶에 656萬名, 韓日合邦 直後인 1912年 289萬餘戶에 1,457萬名, 1931년에 368萬餘戶에 2,000萬名에 다달아 幾何級數的인 增加를 보이고 있다.

李朝末期의 人口增加가 統計上 停滯되고 있었던 것은 傳染病과 飢饉 등 自然減小의 減小要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勢道政治의 餘波로 行政力이 弛緩된 結果, 減小된 것으로 集計되었으리라 생각된다.

以上을 통해서 볼 壬亂以後부터 人口增加는 加速化되었고 따라서 朝鮮後期부터 李朝末을 거쳐 日帝 때까지 農業生産性에 比해서 人口의 急激한 增加로 深刻한 經濟的, 社會的인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以上과 같은 時代의 轉換期에 처해서 朝鮮後期의 氏族의 移住는 前期보다 훨씬 활발하다. [圖 4]에서 보는 것처럼 全南海岸地方에서부터 東北쪽 慶北



資料 : 玉漢錫, 高麗 · 朝鮮時代 氏族의 移住研究 地現學論叢, 第14號, 1987. 12. p. 99.

[圖 4] 朝鮮後期 主要 移住地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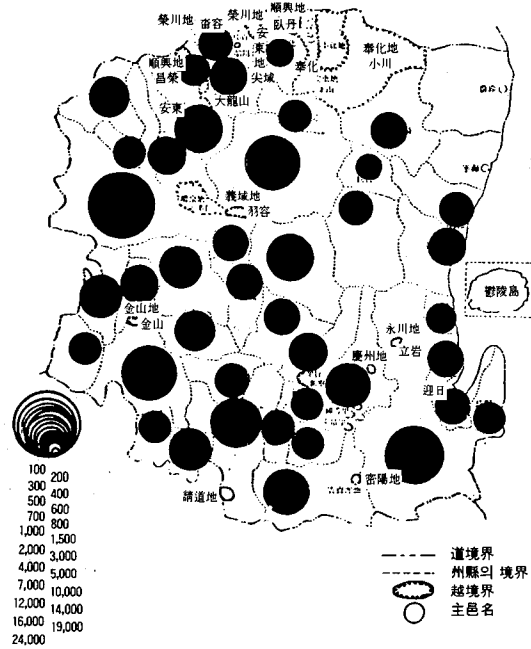
洛東江 上流地域에 걸쳐 移住가 활발하게 일어나 人口가 集中하고 있다.

壬辰倭亂으로 農地가 荒廢化되어 耕作面積은 朝鮮王朝 全體의 1/3로 줄어 들었다. 따라서 이러한 耕地의 開拓과 施肥法, 移秧法 및 二毛作農業이 可能하고 農耕地가 가장 많고 避難하기 좋은 이 地域으로 다투어 人口가 集中하게 되었다.

註 42) 姜萬吉, 韓國近代史, 장작과 비평사, 1984, 18쪽.

註 43) 1809年 全州에 엄습한 旱魃과 이로 인한 飢饉으로 全國人口數를 웃도는 840餘萬名의 飢民數가 報告되기도 했고 1839年 京畿와 충청도에 飢饉때에는 90餘萬名의 飢民이 發生되었으며 以外에도 飢民의 수효가 數萬名을 헤아리는 飢饉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姜萬吉, 前揭書, 144쪽)

註 44) 李智暉, 韓國의 풍토와 생활양식, 현대인강좌 (한국의 발견), 博友社, 1963, 63쪽.



資料：催永俊, 嶺南大路 413-414페이지에 있는 18세기 人口 통계 이용

[圖 5] 朝鮮後期 慶北地方 人口分布

同時에 17世紀 中葉까지 人口가 적었던 地域까지도 增加하는 人口를 收容하게 되어 18-19世紀에 이르러 刮目할만한 人口增加를 이뤘다.

[圖 5]에서 보는 것처럼 18세기 慶北地方의 人口分布는 全體의으로 稠密할 뿐 아니라 安東北部 地方의 山間溪谷에도 在地士族의 開墾과 同族分布로 상당한 人口가 居住하게 되었다.

研究對象地인 安東地方은 旱魃, 洪水의 自然災害와 戰爭으로 亂을 避하기가 容易하고 性理學의 자세를 堅持하기 좋은 隱遁과 卜居地로 알려져와 他道로 부터 人口流入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2. 安東 地域 同族班村마을圈의 形成過程.

慶北 安東地方의 代表的인 在地士族의 居住地 移動과 그들의 分派作用을 통해서 地緣的 共同體를

이른 同族班村마을圈의 形成過程을 實證的으로 究明해 보고자 한다.

安東地方의 5大 姓氏로서 基礎資料가 豊富해서 지금까지 研究가 많이 進陟되어 왔고 比較的 잘 알려진 臨東 水谷의 全州柳氏와 川前의 義城金氏, 그리고 禮安, 溫溪, 土溪의 眞城李氏, 河回의 豊山柳氏, 奉化 답실의 安東權氏의 5大 士族을 研究對象으로 選定하였다.

이들 5大 姓氏의 子孫들이 本據地인 母村에서 分派해 나간 世居地에 同族마을을 이루어 가며 또다시 거기서 分派하여 새로운 同族마을을 이루는 個個의 分派過程을 追跡해 나감으로써 同族마을과 그들이 이루는 마을領域圈 形成過程을 밝혀 보고자 한다.

이들 5大 士族의 主要居住地 移動過程을 概括的으로 밝힌 金德鉉의 「氏族村落의 形成過程과 立地 및 儒敎 文化景觀」,⁴⁵⁾ 수곡의 全州柳氏의 「同族部落의 形成過程 및 文化景觀의 特色」을 밝힌 朴鐘煥의 論文,⁴⁶⁾ 李樹健의 「嶺南 士林派의 形成」⁴⁷⁾ 등 既存研究를 參考로 하였고 이를 土臺로 現地를 調査하여 居住地移動에 의한 同族마을 分化過程을 整理하였다.

1. 全州柳氏 同族마을圈의 形成過程[圖 6]

14世紀 부터 本貫地를 떠나 上京從仕하다가 16世紀初 潤善이 落南하여 榮川에 世居하던중 그의 아들이며 入鄕組인 城이 川前의 義城金氏 璣의 사위가 된것이 入鄕動機였다. 城은 16世紀中葉에 妻家 所有의 田畝과 林野를 分給받아 妻鄕近處의 무실(水谷)로 移住하여 定着하게 되었다. 이처럼 他士族에 비해 다소 늦은 時期에 安東이라는 雄府에서 同族마을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背景⁴⁸⁾은 다음과 같다.

첫째, 安東地方의 強力한 在地士族이었던 義城金氏의 宗家 金璣의 사위가 되므로써 무실 田, 畝, 林野를 分給받아 經濟的 基盤을 마련하였다.

둘째, 入鄕祖 城의 아들인 復起와 復立兄弟가 外

註 45) 金德鉉, 氏族村落의 形成過程과 立地 및 儒敎文化景觀,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3.

註 46) 朴鐘煥, 同族部落의 形成過程 및 文化景觀의 特色, 公州師範大學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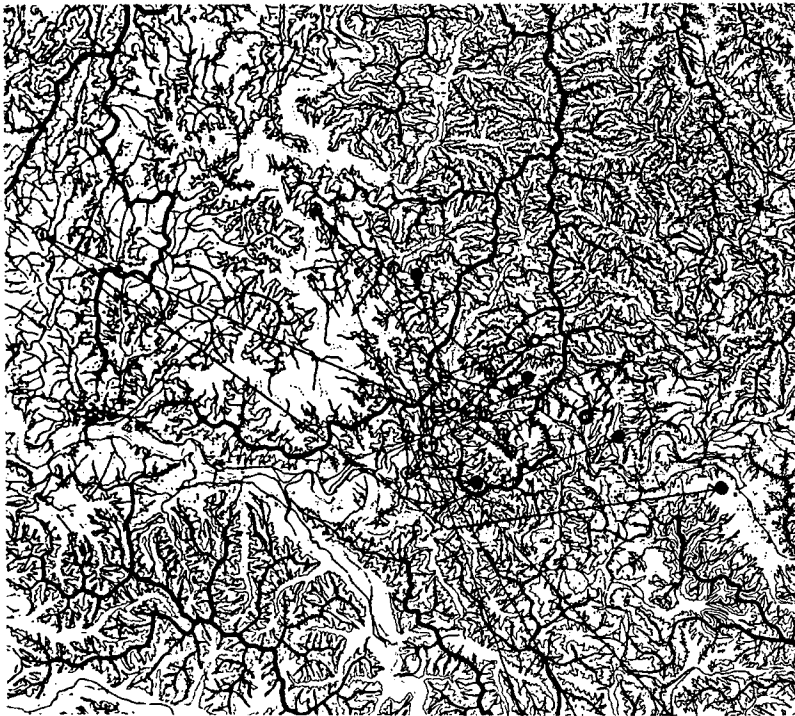
註 47)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嶺南大學校 出版部, 1979.

註 48) 柳承茂, 韓國氏族集團의 解體過程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附屬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6, 9-10쪽.

三寸인 鶴峯 金誠一의 門下에서 學問을 하였고 그들 後孫이 鶴峯의 學統을 이어받아 退溪門徒로 들어갈 수 있는 學問의 基盤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세째, 入鄉祖 城으로부터 全州柳氏 始祖인 濕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벼슬을 하였을 뿐 아니라 祖上으로부터 물려받은 經濟의 基盤도 상당하였다. 네째, 後孫들의 繁昌과 退溪學을 繼承 發展시켜 나

간 文人, 學士가 많이 輩出되었다.⁴⁹⁾ 入鄉以後 子孫들이 母村에서 分家하여 새로운 居住地로 移住하고 거기서 또다시 分家하여 또다른 同族마을을 이루는 全過程을 累積시켜 [圖 6]와 같이 정리하였다.

이와같은 全州柳氏의 居住地 移動을 통한 同族마을의 分化過程은 다음의 몇가지 特徵으로 要約할 수 있다.



17c中 景南울산 20c初 靑松郡 松生里
17c中 靑松郡府南면 안방실
19c中 靑松郡府南면 陽德洞 덕골.

[圖 6] 全州柳氏 分波와 同族마을圈의 形成 過程

첫째, 本據地 무실(水谷)에서 17世紀中葉까지 隣近地로 1次分派하고 18世紀末까지 무실과 1次分派地에서 그 隣近地와 禮安, 靑松, 蔚山등 遠距離로 2次 分派해 나갔다. 19世紀初부터 20世紀初까지 主로 2次 分派地에서 그 隣近으로 3次 分派해 나갔다. 分派의 歷史가 적어도 200年 以上된 1,2次分派地가 李朝末부터 同族마을로 形成되어 나갔고 3次 分派

地는 同族마을화 하지 못하고 他姓族과 混居해서 마을을 이루고 있다.

둘째, 이들 同族마을의 空間的 分化는 本據地 무실을 中心으로 동쪽의 진보, 靑松까지 擴散되었다. 長距離 移住와 3次 分派地를 제외하면 [圖 6]에서 보듯이 日月山에서 뺀어 내려온 앞뒤 산줄기로 이루어진 大谷川上流 溪谷을 따라 同族마을의 分派地

註 49) 退溪-鶴峯-大山의 學脈을 이어받은 柳承鉉, 柳正源, 長源형제, 柳徵文, 柳致明은 退溪學을 發展시켰고 文科及第者(大科) 12명, 小科 37장의 榮예를 누렸다. 또한 67권의 文集을 내는등 많은 文人과 學士를 輩出하였다.

가 形成되었다.

세째, 分派는 크게

- 1) 水谷 —— 朴谷 —— 大坪
- 2) 水谷 —— 안방실 —— 德谷
 |
 |—— 大坪 —— 세장, 음지마
- 3) 水谷 —— 高川 양지마 —— 평지마 —— 셋마
 |
 |—— 마령맛재 —— 갈전동
 |
 |—— 삼산
- 4) 水谷 —— 원과 —— 입암 山海洞 —— 眞寶 부곡
 |
 |—— 갈전
- 5) 수곡 —— 늘침이 —— 광평동 가야
 |
 |—— 고천동 어사 —— 평지마

의 5系列로 分岐되었고 대체로 각기 小宗派別로 居住한다. 17세기 중기부터 18세기 초기까지 짧은 기간에 많은 지역으로 同族마을이 分派, 形成되어 갔다. 이 기간에 中, 長距離 移住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中, 長距離 分派動機는 妻鄉, 官職赴任, 風水上的 吉地를 찾아서 移住하게 되었다.

네째, 母村에서 分派, 移住하는데는 母村의 收容能力 限界때문에 妻鄉이나 分給地로 分家하지만 結局 무실 종파를 中心으로 「수곡파」全體의 空間的 領域을 확고히 形成할 據點에 立地함으로서 다른 氏族보다 先占하려는 意圖가 分家, 分村過程에서 確實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地緣의 共同體를 形成하기 위해 수곡파 全體의 門中이 組織되고 鄉約⁵⁰이 制定되어 自治的으로 共同體를 運營해 왔다.

다섯째, 이처럼 入鄉祖 7, 8대에 이르러서 文科及 第者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후 肅宗, 英祖, 正祖대에 걸쳐 많은 文人, 學士, 特히 高官이 輩出됨으로서 비로소 地緣의 協同共同體로서 同族마을圈이 形成되고 安東地方에서 그 基盤을 확고히 다지게 되었다.

2) 義城金氏 同族마을圈의 形成過程 [圖 7]

義城金氏를 비롯한 眞城李氏, 河回柳氏, 달실權氏는 그 家系와 入鄉의 歷史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關聯資料도 豊富하므로 以後부터 省略하고 그

構造의 特徵만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入鄉後 分派1段階는 16世紀末까지만 하여도 사위가 신부의 본가에 머무르는 風習에 따라 妻鄉으로 分家하여 長距離 移住하고 2段階는 1段階 分派地에서 그 後孫들이 뿌리를 내린것으로 推定한다. 1次分派地에서 2次分派地를 모두 追跡하기가 容易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時代上으로 보아 推理할 따름이다.

둘째, 1次分派地의 母村이 내앞이었다면 2次分派地의 母村은 芝禮가 되었다. 17世紀中葉頃 川前에서 芝禮로 2次 分派해가고 그 後孫들이 19世紀 初까지 半邊川溪谷을 따라 3,4次 分派해 감으로써 地域化된 同族集團의 形成契機를 마련하게 되었다.

세째, 16世紀末 妻鄉을 따라 金鷄로 간 鶴峯 金誠一の 後孫 1派가 17世紀末, 18世紀初에 걸쳐 奉化, 法田의 옥천터와 小川의 林基로 長距離 移住하는 特色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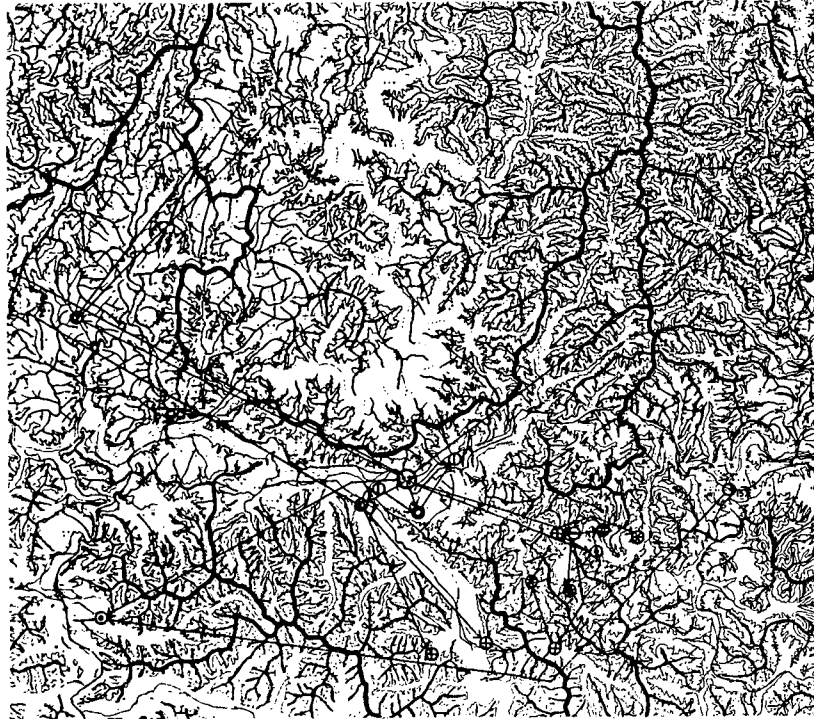
네째, 14世紀末부터 安東地方에 世居하면서 在地士族으로 成長해 왔기 때문에 동쪽으로 川前-臨河-知禮-지동에 이르는 半邊川 上流와 眞寶, 靑松, 英陽의 靑杞에 이르기 까지 農庄을 넓혀나갔다. 또한 入鄉後 鶴峯을 비롯한 많은 인물이 輩出됨으로서 安東의 東班을 장악하게 되었다. 사위집안인 全州柳氏와 약속된 領域境界를 지키면서 鵝岐山을 中心으로 兩家門이 地域的 연대를 확고히 하며 동시에 地緣共同體로서 同族集團의 同族마을圈을 形成하여 나갔다.

다섯째, 이처럼 同族마을圈이 安東府 동쪽으로 擴大해 나간 것은 婚姻과 農庄開墾이 契機가 되었지만 가장 奧地쪽으로 拓해간 것은 그 以前에 다른 士族이 居住한 적이 없었고 산이 깊고 계곡을 따라 開墾하였기 때문에 營農上 有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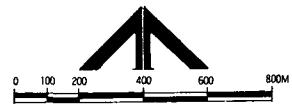
또한 官에서 멀리 떨어져 官의 侵奪을 避하기가 쉽고 士大夫의 유한을 살릴 수 있는 卜居地로서 自然條件을 갖추었기 때문에 독립된 同族마을의 空間領域圈을 形成할 수 있었다.

여섯째, 半邊川 入口部에 川前과 臨河, 新德등을 그리고 상류부 끝에 芝禮, 지동, 천곡, 후평등의 同族마을을 配置시키고 중간곳곳에 外居奴婢마을이

註 50) 宗派나 個人間的 葛藤을 解消하고 門中을 維持發展시키는데 필요한 鄉規로서 完議文과 鄉約이 있다. 무실의 完議文은 友誼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후 柳長源이 만든 鄉約으로 代置되었다. 그 내용은 조상의 門戶建立精神, 墓의 管理, 保全義務 族인들이 지켜야할 구체적인 規約條項 및 벌칙까지도 규정해놓고 있다. (柳承茂, 前揭書, 14-15쪽)



- 凡例
- 종가집 入鄉시기
 - 16세기 初
 - ◎ " 中
 - ⊙ " 中
 - ① 17세기 初
 - ⊖ " 中
 - ⊕ " 末
 - ⊗ 18세기 初
 - ⊗ " 中
 - ⊗ " 末
 - ⊗ 19 初
 - ⊗ " 中
 - " 末
 - 20세기 初



- ① 금계 17초→봉화, 법전 옥전터 입향
- ② 금계 17말 →小川 신기로 입향
- ③ 신당→18초. 예천 지로실 입향
- ④ 천전→16말. 예천 九溪로 입향

[圖 7] 義城金氏分派와 同族마을 圈의 形成過程

나 농막을 設置하여 開墾과 耕作을 할 수 있는 空間 體系와 經營體系를 組織하고 가장 경치가 좋은 곳인 도연에 선유정과 와룡초당을 지어 士林으로써 學問鍊磨와 教育, 儒敎의 風流를 즐길 수 있게 하였다.

3) 眞城李氏 同族마을 圈의 形成過程 [圖 8]

첫째, 松齋 偶의 後孫이 溫惠 북쪽 太子里로 分派하여 많이 世居하고 그 一部가 妻鄉을 따라 醴泉으로, 다시 醴泉에서 榮州와 奉化山間으로 長距離 移住한 반면, 退溪의 後孫은 先代가 開拓한 은계천 아래 계곡을 따라서 그다음은 洛東江 上流 江邊을 따라 近距離 分派하였다.

즉 하계-죽동-상계-의인, 단사, 원촌, 부포等 洛東江 曲流一帶로 近距離 擴散하였다. 나머지 일파는 溫溪 양계곡을 따라 卜居해 갔다.

둘째, 溫惠를 中心으로 주로 退溪派가 近距離에 分派하여 移住함으로 19世紀初까지 이 一帶가 眞城

李氏의 地緣的 協同共同體의 同族마을 圈을 形成해 갔다.

세째, 偶, 漉, 滉의 3숙질이 掘起하면서 名家門이 되었고 그 後光으로 예안 북부 同族마을 圈을 形成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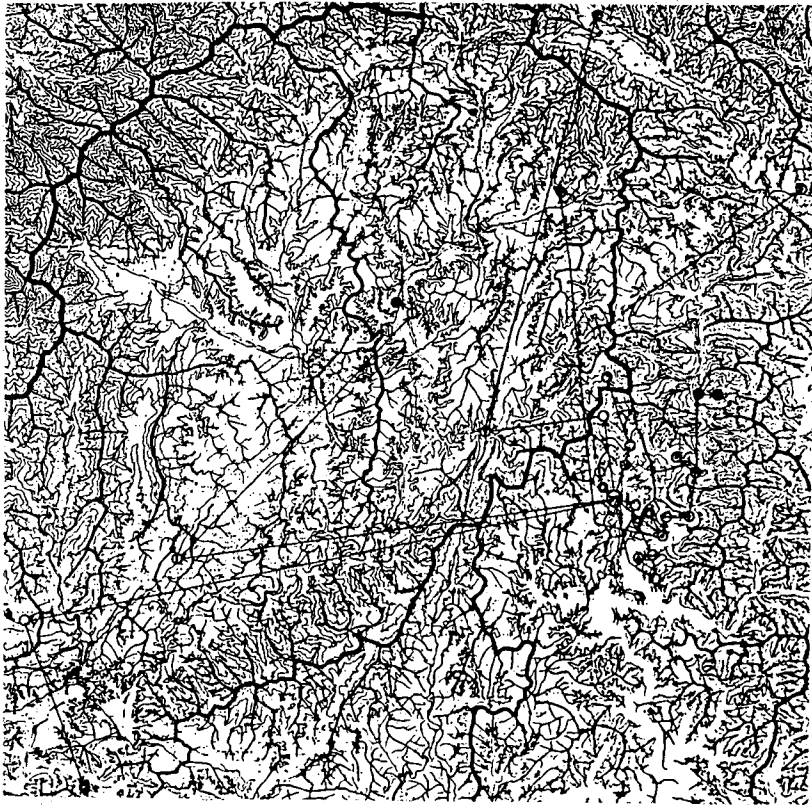
네째, 時期的으로 16世紀末부터 17, 18世紀에 걸쳐 19世紀 中葉까지 溫溪의 작은 계곡에서 상계-하계를 거쳐 大江인 洛東江邊으로 점차 擴大되어 갔다.

다섯째, 分派의 立地가 계류가 흐르는 계곡양안을 끼고 卜居한 特徵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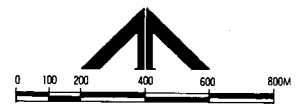
4) 豊山柳氏 同族마을 圈의 形成過程 [圖 9]

[圖 9]에서 보듯이 豊山柳氏의 分派過程은 他家系와 比較해서 많이 分派되지 않은 것이 特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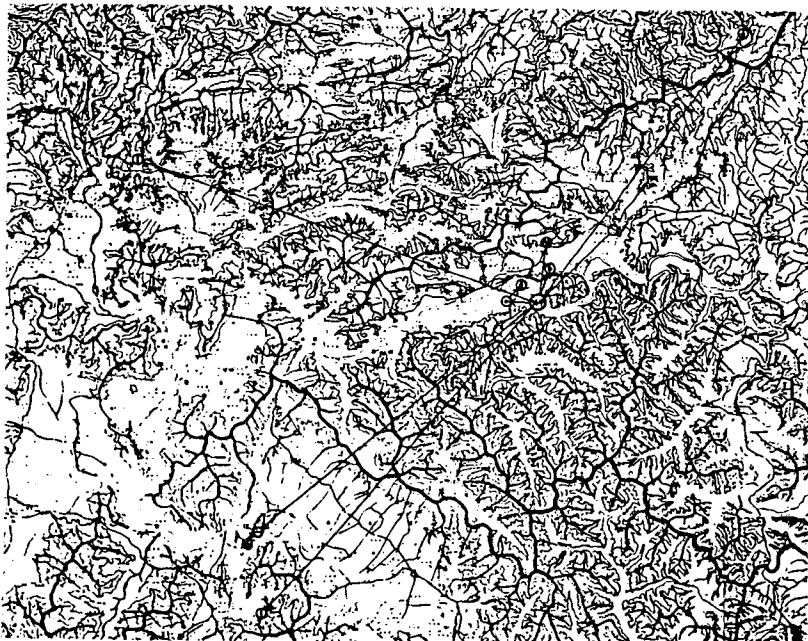
첫째, 14世紀 中葉에 裴氏와 함께 河回로 入鄉하여 16世紀까지 柳, 裴氏와 그들의 사위, 그리고 原住民인 許氏, 安氏가 함께 居住하는 異姓雜居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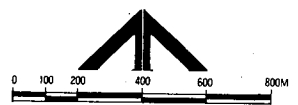
- 凡例
- 종가집 入鄉시기
 - 16세기 初
 - ⊙ " 中
 - ⊗ " 中
 - ① 17세기 初
 - ⊖ " 中
 - ⊕ " 末
 - ⊕ 18세기 初
 - ⊗ " 中
 - ⊗ " 末
 - ⊕ 19 初
 - ⊗ " 中
 - ⊗ " 末
 - 20세기 初



[圖 8] 眞城李氏 分派와 同族마을 圈의 形成過程



- 凡例
- 종가집 入鄉시기
 - 16세기 初
 - ⊙ " 中
 - ⊗ " 中
 - ① 17세기 初
 - ⊖ " 中
 - ⊕ " 末
 - ⊕ 18세기 初
 - ⊗ " 中
 - ⊗ " 末
 - ⊕ 19 初
 - ⊗ " 中
 - ⊗ " 末
 - 20세기 初



[圖 9] 河回豊山 柳氏의 分派와 同族마을 圈의 形成過程

었다.⁵¹⁾

둘째, 初期 1段階分派는 모두 妻鄉을 따라 長距離 移住한 반면 後代 17世紀末부터 18世紀 中葉까지 河回隣近으로 극히 一部가 分派해 갔다.

세째, 後代로 내려올수록 子孫이 繁昌하지 못하여 河回마을안으로 分家하는 同村分派를 해서 同族大姓村을 形成하였다. 先代의 農土가 풍산들을 비롯하여 江 건너 廣德, 錦溪, 漁潭, 仁令一帶에 廣大한 規模로 散在해 있어 近郊榮農이 可能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5) 安東權氏 同族마을圈의 形成過程 [圖 10]

첫째, 16世紀 初葉 歙(西谷)에 入鄉한 權撥은 歙 동쪽 歙내천을 따라 길게 늘어선 背山前 野山間 작은 계곡 곳곳에 農耕地를 開墾하였고 나아가 奉化, 春陽일대에도 開墾하여 農莊을 이루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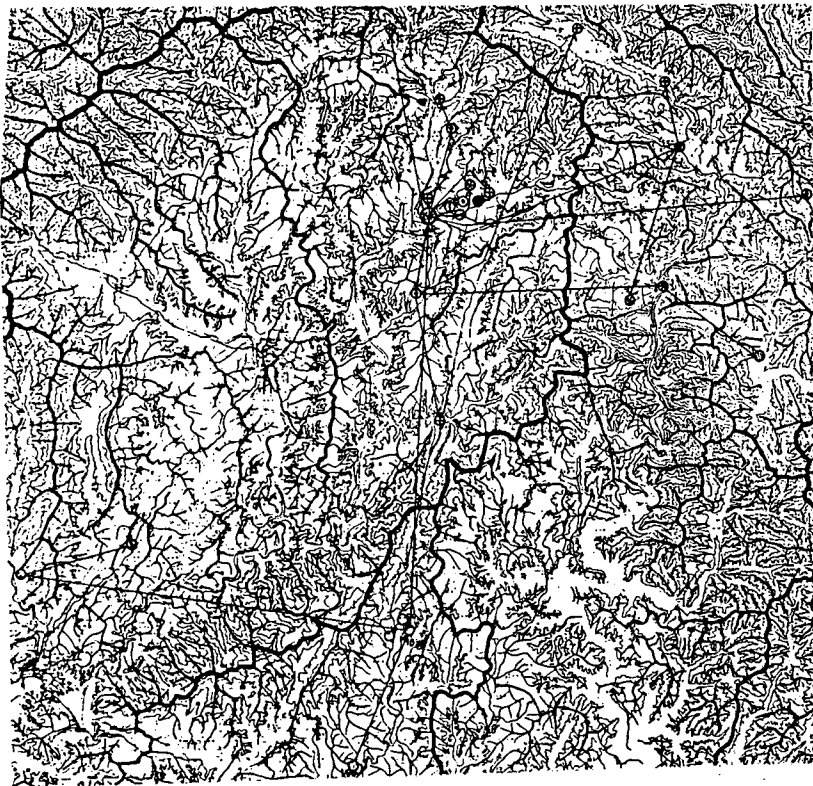
둘째, 따라서 歙실에서 동쪽 유곡천을 따라 吐日, 새말, 塔坪, 양정, 구령마을, 송생이等地로 1.2次 分派하였다.

셋째, 後代는 동쪽 春陽 서벽일대와 북쪽 物野쪽 그리고 小川, 明湖등지의 오지로 장거리 分派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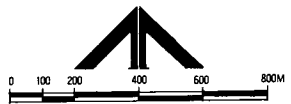
네째, 後代에 많은 文人, 學士가 輩出되어 歙실, 吐日일대의 中心同族마을圈을, 物野, 春陽, 小川, 明湖, 等地의 邊境要地에 同族마을을 분포시킴으로서 邊境同族마을권을 形成하여 봉화에서 가장 큰 勢力圈을 가졌다.

다섯째, 中宗때 참봉을 지낸 陶谷 權鈞의 後孫이 奉化 남쪽 立石마을을 中心으로 道心, 才山, 明湖등지로 遠距離 分派하였다.

여섯째, 東江 權士溫과 그의 아우 酉星菴 權士비의 후예들이 明호면 일대에 거주한다.



- 凡例
- 宗가집 入鄉시기
 - 16세기 初
 - ◎ 〃 中
 - ⊙ 〃 中
 - ⊖ 〃 17세기 初
 - ⊕ 〃 中
 - ⊗ 〃 末
 - ⊗ 〃 18세기 初
 - ⊗ 〃 中
 - ⊗ 〃 末
 - ⊗ 〃 19 初
 - ⊗ 〃 中
 - ⊗ 〃 末
 - 〃 20세기 初



[圖 10] 安東權氏 分派와 同族마을圈의 形成過程

註 51) 金宅圭, 氏族部落의 構造研究, 一潮閣, 1979, 20쪽

3. 同族班村마을圈 形成의 背景要因

麗末鮮初부터 發達하기 시작하여 16世紀 後半에는 在地土族은 물론 鄉吏層까지도 農庄을 設置하였다. 農庄制는 親家·妻家·外家가 共存하는 血緣共同體로서 異姓中心 마을과 外居奴婢村과 農暮마을을 構成하여 村落社會를 支配해 왔다.

이러한 經濟的 基盤위에 新進勢力으로 成長한 士大夫階層이 李朝後期 中世社會 秩序의 崩壞에 직면해서 儒敎文化를 背景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鄉村社會를 어떻게 建設해 왔는가를 研究할 必要가 있다. 鄉村社會 秩序를 形成하기 위해 地緣的 協同共同體를 形成해 왔다. 이처럼 安東地方에서 地緣的 共同體로서 同族마을圈이 무엇때문에 形成되어 왔는가를 지금까지의 研究를 토대로 그 背景要因을 밝혀 보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中世身分秩序의 崩壞와 急速한 人口增加에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兩大戰爭以後 慶北地方의 兩班은 계속된 閹閹化를 指向한 黨爭으로 權力에서 疏外되었기 때문에 南人으로서 執權바갈의 兩班으로 轉落하였다. 그래서 鄉村社會에서 經濟的 基盤을 다지면서 그 地位를 維持하려고 했다. 또한 農民層이 分化되어 一部는 經營型 富農으로 새로운 庶民地主로 成長하는 한편 大多數 農民層은 沒落하여 零細 小作農이나 賃金勞動者의 처지로 轉落했다.⁵²⁾ 가장 낮은 身分層에 있던 奴婢階級의 경우도 戰爭功勞로 身分이 上昇되거나 避役도망으로 身分解放의 길을 찾았다. 또한 戰爭功勞·納贖·空名帖發賣 등을 통해 많은 非兩班 身分層이 兩班身分을 얻게 되어 朝鮮後期社會에 兩班人口가 急激히 增加하고 良人과 奴婢 身分層은 急激히 줄어들었다.⁵³⁾ 慶北地方 在地家族들은 이러한 中世의 身分秩序 崩壞에 對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人口가 急速度로 增加함으로써 特히 農耕地가 많고 農業技術이 發達한 慶北地方에 人口가 集中하여 自然村이 생기기 시작했다. 따라서 慶北士大夫는 그들이 開拓한 農庄을 中心으로 將來 營爲할 鄉村社

會의 據點確保가 必要했기 때문에 考察한 바와같이 競爭의으로 자기네의 領域을 確保해 나갔다. 이 過程에서 既存의 居住하고 있던 勢가 약한 氏族들은 淘汰되었다.

둘째, 家系의 繼承을 重要하게 여기는 儒敎의 家族意識의 強化에서 출발되었다. 그것은 日常生活속에서 朱子家禮의 浸透와 家族制度의 轉換에 의해서 이루어져 갔다. 16世紀 以後부터 朱子家禮에 의한 祖上崇祖가 宗法을 통해서 實質的으로 士大夫의 집안에서 시작되고 17·18世紀가서야 비로소 普遍化되기 시작한다.⁵⁴⁾ 祖上에 對한 祭祀와 儒敎의 血緣秩序의 樹立 그리고 相扶相助의 生活上의 協同, 子女教育 등을 위해 門中을 組織하여 地主階層에서 宗法을 實踐했다. 이는 同族마을의 成立을 前提로 하고 있다. 이러한 宗法의 實踐으로 지금까지와는 달리 家父長中心의 家族關係로 바뀌었다. 父系血緣의 垂直構造를 強化하여 말아들에 대한 祭祀相續權이 確立되고 差等相續이 普遍化되고 居住問題도 사위가 신부의 친가에 머무르던 풍습이 迎親女歸男家로 서서히 바뀌었다. 또한 同族間의 結束을 強化하기 위해 族譜의 刊行이 중요시되고 따라서 당시 士大夫階層에 있어서 譜學은 必需的 知識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었다.

세째, 士林派의 儒敎의 鄉村社會建設의 影響을 받았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兩戰禍로 인해 荒廢化된 村落을 再建設하기 위해 五家流法을 다시 施行하려 했다. 流民發生을 規制하고 各種 租稅納付를 督勵하기 위해 地方行政의 先端機構로 面里制를 施行했다. 그러나 朝鮮後期의 여러가지 社會的인 變動때문에 實施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와 병행해서 鄉約의 組織을 강화해 나갔다.

이러한 背景下에 16世紀에 發生했던 鄉約은 朝鮮後期에 이르러 全國的으로 擴大되었고 鄉約組織의 五家統法보다 더 오래 持續될 수 있었다. 그 까닭은 鄉約은 任員職이 土豪나 鄉族에게 獨占되어 있었고 이들은 이 地位를 利用하여 鄉村社會에서 군림할 수 있도록 配慮되어 있었기 때문이다.⁵⁵⁾ 特히 16世

註 52) 姜萬吉, 前揭書, 115쪽.

註 53) 姜萬吉, 前揭書, 115쪽.

註 54) 朝鮮時代 門中의 初期形態는 16世紀에 出現하고 좀더 組織化된 것은 17세기에 形成된 것으로 생각된다. (崔在錫, 朝鮮時代의 門中形成, 韓國學報 제32집, 1983, 8쪽.)

註 55) 姜萬吉, 韓國近代史, 創作과 批評社, 1984, 14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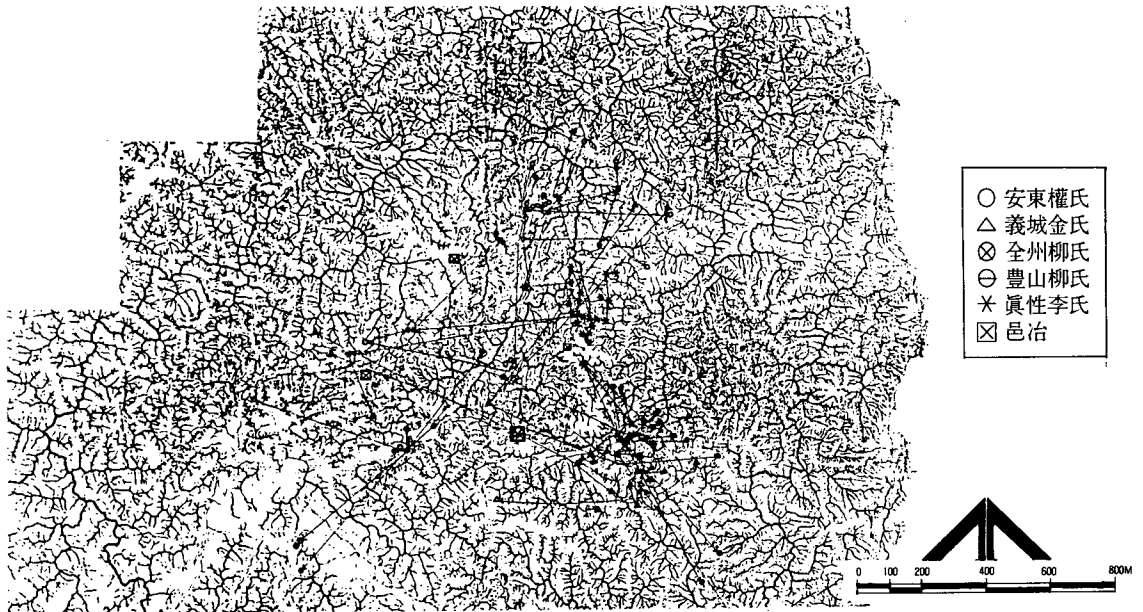
紀에 들어와 土禍를 겪은 嶺南 士林派와 閔閔政治로 權力에서 밀려난 南人 士林派 儒學者들이 落鄉하여 隱居함에 儒敎文化의 本據地가 慶北으로 옮겨지고 鄉約施行을 통한 鄉村社會의 支配와 儒敎의 地方文化圈을 形成하게 되었다. 李朝後期 官人增員策에 의한 官人 洪水사태를 벌였던 세상풍경을 李重煥은 擇里法에서 다음과 같이 描寫하고 있다. 「中央官署에서 勤務하던 高官이 鄉村에 돌아가면 權勢를 누릴 수 있으나 서울근교에 머물면 家勢가 貧困해 질 뿐만 아니라 1·2世代를 거친 然後에는 품관이나 평민이 되기 마련이다.」 또 村落社會의 支配者로 자리잡은 官人들의 生態에 關해서「士大夫들은 村落안에서 權勢를 부리며 小市民을 收奪하고 支配權의 強化에만 힘쓰기 때문에 社會秩序는 形容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칠어져 갔다.

그리고 高官들이 村落社會안에서 어떠한 環境을 지닌 村落을 支配의 根據地로 세웠는가에 關해서「古代中國 士大夫層과 달리 韓國 士大夫들은 農民이나 商工人과 더불어 사는 것을 忌避하는 性向을 지니고 있다는 事實을 指摘하면서 따라서 한가로운 고장을 택하여 同族村落을 세우게 된다.」고 하였다.⁵⁶⁾

네째, 自衛的 協同體制構築의 必要性에 起因하고 있다. 兩大戰亂을 겪은 不安心理에서 戰亂을 避할 수 있고 朋黨의 對立이 심각함에 따라 自衛防禦의 觀念에서 나왔고 심각한 旱魃과 洪水의 自然災害를 덜고 官吏들의 收奪과 虐政에서 避할 수 있는 隱遁安住地를 찾아 同族地緣의 協同共同體를 形成하려고 하였다. 特히 鄉吏層과 衙前層의 收奪이 大邑의 경우 적으나 小邑의 경우 더욱 심하였다. 따라서 大邑에서 멀리 떨어진 경우 그같은 收奪을 防止하기 위해 同族一門이 相扶相助하여 同族마을圈을 形成하고 共同祖上의 意識아래서 經濟的 自衛的 協同體制를 構築하고 同族和睦을 圖謀하며 同族祖上의 集團生活에서 얻는 效果는 실로 컸다. 따라서 同族內의 支配體制는 물론 同族外 支配體制까지도 強化함으로써 村落支配의 據點을 確保하는데 있었다.

지금까지 同族班村마을圈의 形成過程을 安東地方의 事例를 통해서 把握하였고 그 背景要因을 歷史的 脈絡에서 論據하였다. 끝으로 宗家마을을 基地로 하여 同族마을間의 連帶領域圈을 形成하면서 成熟되는 過程을 考察할 必要가 있다.

앞에서 考察한 安東地方의 同族마을들이 地域的으로 構築되어 나가는 過程을 統合시켜 보면 [圖



[圖 11] 安東 5大 姓氏의 同族마을圈 形成過程

註 56) 高承齋, 前掲書, 259-261쪽에서 引用.,

11]과 같다.

義城金氏와 全州柳氏가 3-4世紀에 걸쳐 獨自的 領域을 固守하면서 相互連帶하여 安東의 東班領域을 掌握하고 있다. 眞城李氏는 溫溪를 中心으로, 安東權氏는 歙실을 中心으로 各기 支配領域을 擴大해 나갔다. 여기에 比해 豊山柳氏는 河回本據地를 基 礎로 間 點이 다르다. 現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로는 河回의 豊山柳氏는 先祖인 柳成龍先生의 陰德으로 朝鮮後期의 執權勢力인 北人이나 老論 또는 勢道 安東金氏쪽에서 그렇게 박해하지 않고 어느정도 보호해 주었다. 그러한 연유로 同族마을圈 形成보다 單一 同族마을로서 名聲이 높은 河回에 安住하고 싶었기 때문에 同村分派가 이루어졌다.

問題는 母村 本家에서 分家한다고 同族마을이 形成되어 成熟되지 않는다. 하나의 同族마을이 形成되는 過程을 分家하는 집집마다 追跡하여 完成되는 全過程을 研究한 것이 [圖 12]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同族마을이 이루어지는 데는 적어도 10代이상의 歲月이 걸린다. 이 경우는 次子들이 같은 東네로 分家하는 同村分家이므로 安東名門家보다 빨리 形成됨을 알 수 있다.

앞에서 考察한 것처럼 安東의 士族들은 宗家의 母村마을을 中心으로 周邊領域의 據點確保를 위한 다른 基地로 分家하므로 마을이 이루어지는데는 長久한 歲月이 걸린다. 따라서 川前이나 溫溪같은 경우 15世紀 中葉에 入郷하였어도 제대로 마을이 成熟되기까지 300年以上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各기 分村이 班村마을로서 宗家·祠堂·亭子·書院·堂木 등을 제대로 갖추고 20戶以上 規模의 同族마을로 成熟하고 母村과 連帶하여 그들의 廣大한 支配領域圈을 構築하는데는 적어도 400年以上 걸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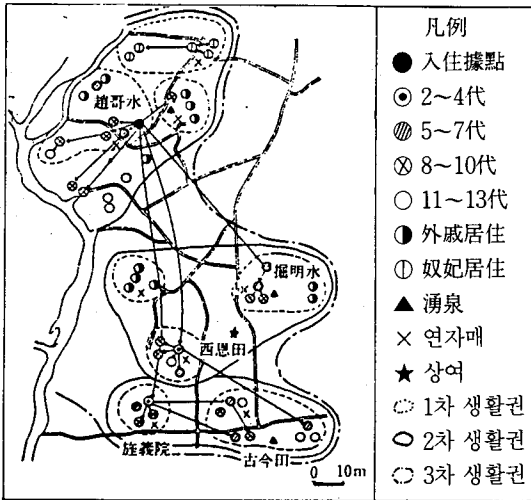
日帝時 1930년에 調査한 同族마을 가운데 元宗家가 있는 母村은 發生年代가 500年程度 되었을 것이다. 마을의 規模로 보면 [表 2]과 같다.

河回의 경우가 가장 큰 大村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母村도 비교적 큰 마을이었다.

이렇게 보면 이들 마을이 당시에 最大規模일 것으로 추측된다.

단 유의해야 될 점은 分家해 가더라도 17-19世紀까지는 奴婢와 領土를 거느리고 比較的 近距離 分家였기 때문에 新基地에 쉽게 適應해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慶北 安東地方의 名門族들은 廣大한 地域에 걸쳐서 白衛의 同族의 地緣의 協同共同體를 形成하여 儒敎적 鄉約으로 鄉村社會를 支配해 왔다. 이러한 構造속에서는 財産을 모아 戶籍上 兩班을 산다고 해도 實質的으로 兩班이 될 수 없었다. 兩班끼리 重疊的 婚姻關係와 몇 世代에 걸친 來曆을 서로 잘 알고 있는 兩班끼리 閉鎖的인 構造속에서 儒敎의 兩班體質은 더욱 深化되었을 것이고 士大夫의



資料 : 오홍석, 취락지리학, 교학연구사 1989, p. 172.

[圖 12] 同族聚落의 分布도

[表 2] 1930년 母村마을의 人口規模

| 마을 | 同姓 | 非同姓 | 합 |
|----------|------------|------------|-------------|
| 河回(豊山柳氏) | 158호(857명) | 132호(637명) | 280호(1494명) |
| 내앞(義城金氏) | 85호(435명) | 71호(365명) | 156호(800명) |
| 무실(全州柳氏) | 92호(515명) | 40호(220명) | 132호(735명) |
| 溫溪(眞城李氏) | 77호(395명) | 112호(518명) | 189호(913명) |
| 歙실(安東權氏) | 90호(420명) | 30호(118명) | 120호(538명) |

威信은 最上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울타리안의 兩班地位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선비기질이 나라가 어려울때 힘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 川前出身의 日帝時代獨立運動家였던 金東三先生도 그 예에 屬한다.

이러한 意味에서 본다면 歷史學 分野에서 通說의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李朝後期 兩班社會의 崩壞는 적어도 安東과 같은 同族마을圈에서 맞지 않으며 오히려 강화된 구조를 갖고 있다.

VI. 結 論

이 研究는 士大夫가 長期的 布石下에 意圖의 으로 傳統住居地를 造營하는 過程과 그 基盤및 背景要因을 考察하였다.

廣大한 地域에 걸친 住居地를 自衛的 同族間 協同的 地緣共同體로 形成하기위해 地緣的 同族마을을 數世代에 걸쳐 造營하였다. 이와같은 儒敎的 鄉村社會를 建設하기에 適合한 地理構造를 찾아 始祖의 入鄕母村. 分派마을. 耕作地. 墓位土. 外居奴婢마을. 講學所 및 精舍를 配置하는 空間構成을 하였다. 지금까지의 研究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結論지 운다.

1. 麗末鮮初의 歷史的 轉換期에 士大夫로 成長할 수 있었던 在地的 基盤을 形成하였던 背景은 다음과 같다.

첫째, 嶺南學脈의 基盤이라 할 수 있다. 이것에 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本文에서는 言及하지 않았다. 嶺南地方에는 朱子學의 收入以前부터 各邑마다 土姓土族이 隱存하여 實質的으로 郡縣을 支配함과 同時에 家學을 背景으로 文士를 繼續的으로 輩出한 淵源이 있다. 鮮初 國家의 獎勵策으로 嶺南出身 登科士類의 首領이 性理學을 普及하고 家學의 發達로 登科容易한 學問的 傳授와 師友關係 등 學文的. 血緣的. 地緣的. 連帶를 重疊的으로 맺고 있었다.

둘째, 落鄕在京官人. 在土士族. 功臣家門間의 重疊的인 婚姻關係로 奴婢와 農耕地를 均分相續 받았다. 소위 富의 世襲化가 一般化되어 있었다.

셋째, 國家의 賜田과 私田의 擴大. 勸農政策에 따라 廣大한 陳荒地의 起耕과 새로운 開墾 그리고 農

耕技術. 農民投託. 長利. 強占. 購入등을 통해서 農莊을 擴大시켜 나갔다. 다시 말해서 學問과 經濟的 基盤과 權力이 世襲되는 構造的 關係를 形成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在土士族의 成長基盤인 奴婢의 增大와 農莊의 擴大는 16世紀에 들어 오면서 同族마을圈 形成의 基盤이 되었다.

2. 李朝後期 中世의 封建秩序가 崩壞되기 시작하는 轉換期에 對處해서 士大夫는 自衛的 同族集團의 儒敎的 鄉村社會를 建設하고자 한다.

그 背景은 다음과 같다.

첫째, 人口集中으로 인한 慶北地方의 急速한 人口增加와 中世身分秩序의 崩壞徵兆에 對備해서 自衛策을 講究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兩班社會를 떠마쳐 왔던 奴婢가 急速히 줄어들고 良民層이 沒落하고 한편으로 새로운 經營形富農層이 擡頭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急速한 人口增加로 因해서 지금까지 疏外되었던 邊方地域으로 自然村이 形成. 擴散되어감에 따라 危機意識을 느꼈기 때문이다. 따라서 將來를 위한 據點을 先占할 必要가 있었다.

둘째, 自然災害와 貪官汚吏의 收奪, 朋黨對立의 禍로부터 同族을 保護하고자 自衛的 發露에 있다. 당시의 이와같은 自然의 人爲的 災難은 極甚하여 社會基盤을 뒤흔들어 놓을만큼 그 被害가 막대하였다. 그래서 스스로의 生存을 保障할 수 있는 삶의 方式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셋째, 儒敎的 意識과 風習의 生活化. 普遍化에 起因하고 있다.

家系繼承을 중요시한 家族意識의 強化. 嫡長子奉祀와 儒敎的 血緣秩序의 樹立. 適長者의 優位相續制. 同族間 結束強化를 위한 族譜編纂과 譜學의 發達. 生活上의 相扶相助의 協同. 鄉村의 儒敎的 教化 등 儒敎文化의 支配가 社會全體的으로 스며들었다. 따라서 同族間 自衛的 協同的 地緣共同體의 構築이 必要하게 되었고 이와같은 住居地 造營思想은 地緣的 同族마을圈을 形成하게 되었다.

3. 地緣的 同族마을圈의 形成事例를 통해 兩班社會의 傳統이 確立되어 간 것으로 把握할 수 있다.

李朝後期에 兩班制를 主軸으로 한 身分階層構造가 崩壞되었다는 主張은 史學界의 定說로 되어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意圖로 形成된 自衛的 協同

의 共同體에서는 門中組織과 鄉規에 의해서 兩班社會의 秩序構築을 強化하였다. 그 以前에는 子女均等 相續制下에서 妻鄉으로 장가가서 妻家살이하고 外孫子가 繼續해서 居住하던 異性雜居村이었다. 儒敎도 生活化와 普遍化하지 못했던 時期였다. 18. 19世紀에 崩壞되었다고 主張하던 時期보다 늦은 19世紀에서 20世紀初半까지가 오히려 兩班意識構造나 禮俗, 행동거지, 家門重視등 훨씬 強化된 兩班社會였다. 富의 힘으로 取得한 族譜上的 兩班은 家系가 確實하고 적어도 300-400년에 걸쳐 形成된 地緣의 同族마을圈이 수개로 이루어진 安東과 같은 班村社會에서는 兩班행세를 하지 못했다. 그 예로 일제때 富를 이루어 解放以後 兩班이 되려고 온갖 努力을 아끼지 않았던 千氏의 경우도 安東社會에서 結局 實質的인 兩班이 되지 못하는걸 본다.⁵⁷⁾ 宋俊浩教授는 一貫性있게 兩班社會의 傳統뿌리가 깊고 질겼다고 主張해 왔다.⁵⁸⁾ 一般的으로 同族반촌마을이 15-16世紀에 發生하였고 17世紀以後 普及된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 그러나 形成過程을 考察해 보듯이 300-400년의 長久한 歲月에 걸쳐서 비로소 마

을로 形成되어 機能하는걸 볼 때에 同族마을은 오히려 日帝때가 그 전성기인것 같다. 1930年 調査에서 볼때 큰마을의 경우 200戶以上에 달했다.

이처럼 形成의 歷史가 長久하고 傳統뿌리가 깊고 깊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特色있는 마을의 風習도 잘 保全되어 내려온다.

4. 다음으로 同族間의 自衛的, 協同的 地緣共同體로 形成된 마을은 長期的인 布石아래서 住居地를 造營해 나갔다.

空間的 領域이 確實한 地理構造를 다른 共同體가 侵入하지 못하도록 갖춰야 한다. 그래야 農耕社會에서 同族마을의 統一性을 維持할 수 있다. 慶北北部地方은 比較的 그러한 構造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自然的 災害를 避하고 灌溉와 農耕에 山間溪谷이 有利하였다. 따라서 大河川이나 강하류의 平野地帶는 脚光받지 못했다. 15世紀와 16世紀에 安東의 士族들의 農庄이나 居住地는 外部와 遮斷된 地形이고 伏(川防)을 만들어 灌溉를 쉽게할 수 있는 곳 이었다. 또한 地域間 連結路에 接近可能해야 마을立地로서 有利하였다.

註 57) 全京秀, 同族集團의 地住上向移動과 個人 役割, 傳統生活構成의 研究, 下.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註 58) 宋俊浩, 朝鮮社會史研究, 一朝閣, 1987